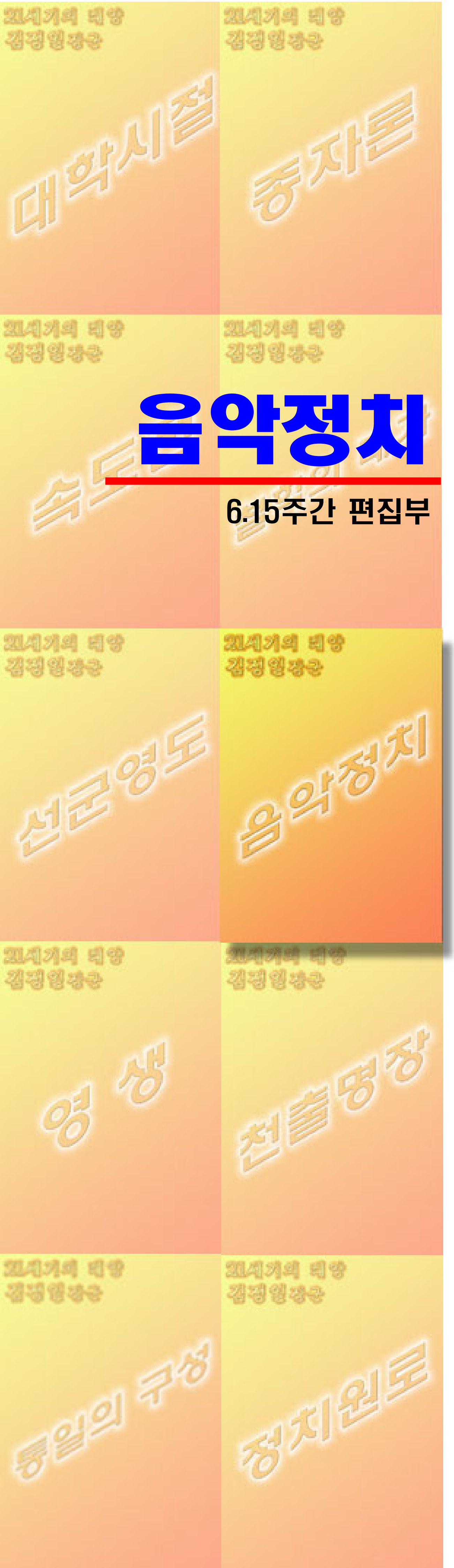
21세기 태양

6

음악정치



6.15주간 편집부



음악정치

6.15주간 편집부

세기와 더불어

4 미래에 대한 락관

노작

6 영화예술론
- 음악과 음향을 살려 써야 한다
- 음악이 없는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
- 들을수록 좋고 인상 깊은것이 명곡이다
- 선률은 특색이 있어야 한다
- 가사가 좋아야 곡이 잘된다
- 음악은 장면에 맞아야 한다
- 편곡은 창작이다

노래정치

20 령도자의 노래정치

영도철학

22 주체의 예술을 창조하라

일화

24 절가
26 음감

구국전선

28 민족악기를 개량발전시키시어
29 장군님께서 좋아하시는 세계적인 명곡

주체 87년 음악정치

30 설명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31 위인에 대한 찬가
32 경축공연관람
32 여러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
33 **김정일**총비서를 칭송하는 노래를 창작보급
34 조선인민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 락관의 노래
34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경축공연 관람
35 당창건53돐경축공연관람
36 공군사령부 예술선전대, 포병중대의 공연관람
37 새별회, **김정일**총비서 칭송하는 노래와 시
37 군공훈합창단과 군악단의 합동공연 관람

주체 88년 음악정치

38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
38 휘파람악단이 서울에서 2.16경축공연
39 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
39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관람
40 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관람
40 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41 인민군청년기동선전대의 공연을 관람

주체 89년 음악정치

42 수령흠모송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43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
43 칭송, 음악평론가
44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45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
46 중국고위군사대표단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관람
47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

주체 90년 음악정치

48 중국 상해 교향악단공연을 관람
48 중국공산당대표단과 상해교향악단 환영연회를 베푸시였다
49 로씨야국립아까데미야내무성 협주단의 공연을 관람
49 협주단의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접견
50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
50 군공훈합창단과 군악단의 합동공연 관람
51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을 접견



평양시내 5천명의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를 보시고
창작성과를 고무격려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4(1985). 11)





미래에 대한 락관

세기와 더불어 제 2권

대원들에 대한 신념교양, 락관주의교양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된 것은 문예활동이었습니다. 혁명적인 문화오락을 떠나서는 항일유격대의 생활을 론할 수가 없고 혁명적인 노래와 춤을 떠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걸어온 승리의 로정에 대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동무가 조선혁명은 노래로부터 시작되었고 노래속에서 전진하여 왔으며 노래와 함께 승리한 혁명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조선혁명처럼 노래와 밀착된 혁명, 노래로 엮어진 혁명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혁명 그 자체가 하나의 장중한 교향곡이고 노래를 낳는 터전입니다. 노래를 떠난 혁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터나쇼날≫의 노래를 떠나서 국제로동운동의 발전력사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만원정때 우리에게 곁을 주지 않던 군중을 쟁취한 것도 노래였고 우리를 피해 달아났던 중국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사랑하는 ≪소무가≫였습니다.

노래는 나의 인생행로에서도 많은 작용을 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이 ≪자장가≫로 시작되었다면 나의 혁명투쟁은 ≪압록강의 노래≫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평나루터를 떠나 압록강을 건널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조국을 찾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압록강가에서 다진 그 맹세를 생각하며 싸움의 길을 다그치군했습니다.

중학시절부터는 자체로 가사도 쓰고 곡도 붙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조선의 노래≫가 나오고 ≪반일전가≫가 나오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가 나왔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군했습니다. 식량이 없어 맹물로 끼니를 이어갈 때에도 노래를 부르며 힘든 고비를 넘기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성장하고 혁명도 발전하였습니다.

배고플 때 노래소리를 들으면 배고프지 않았고 힘이 진했을 때 노래를 불러주면 기운이 났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경위대원들이 눈속에 파묻혀 일어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써도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날 아무것도 먹지 못한데다가 지칠대로 지쳐서 힘이 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나도 몸을 가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나는 눈속에 미이라처럼 누워있는 대원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적기가≫를 불렀습니다. 대원들은 그 노래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행군을 계속하였습니다.

적들이 한때 수천명의 병력으로 처창즈유격구를 봉쇄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고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혹심한 식량난과 적의 거듭되는 토벌로 사경에 이른 처창즈인민들을 결사전에도 불러일으킨 것이 아동단원들이 부른 혁명가요였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에는 우리에게 전문예술단체로 없었고 직업적인 창작가나 배우들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일유격대원들은 스스로 가사도 쓰고 곡도 붙이면서 ≪유격대행진곡≫과 같은 훌륭한 혁명가요들과 혁명적인 연극, 가극, 춤들을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청년학생운동시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격구시절에도 연예공연을 자주 조직하였으며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서 대부대류동전을 하던 시절에도 문화정서생활을 생활화하였습니다. 연예공연은 산에서도 하고 주민부락에서도 했습니다.

연예공연을 할 때에는 주변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엄호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 적들이 달려들어도 마음놓고 공연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은 명절날에도 하였고 큰 전투를 치른 다음에도 하였으며 부대에 신입대원들을 많이 받아들였을 때에도 하였습니다.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하든지 우리가 추구한 종국적인 목적은 군대와 인민을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강의한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그들 모두를 불굴의 혁명투사로 만들자는데 있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우리는 공연소개도 락천적인 맛이 나게 하였습니다.

7련대 2중대 동무들은 도천리에 가서 군민련환오락회 형식으로 연예공연을 조직했는데 ≪깔깔웃음대회≫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깔깔웃음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식으로 광고를 써붙였더니 농촌집마당과 그 주변에 사람사태가 날 지경으로 많은 구경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깔깔웃음대회≫, 얼마나 기지있고 익살스런 표현인가. 이 광고만 보고서도 사람들은 입가에 웃음을 그리었습니다.

빨치산의 연예공연은 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문화오락과 공연활동으로 기분전환을 하군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중흡과 강흥석이 희생된 다음에도 연거퍼 두번이나 큰 규모의 연예공연을 조직하였습니다. 우리 부대의 병사, 지휘관들이 그들이 전사한 때만큼 그렇게 슬퍼하고 분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중흡의 장례를 한 그날밤 숙영지에서는 흰밥에 절인 고등어를 구워 저녁식사를 마련했으나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김정숙은 고등어만 보면 오중흡의 생각이 나서 눈물을 짓군했는데 그를 잃고난 다음 우리 대원들의 기분상태가 얼마나 침통했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군도중 우정 시간을 내여 오락회를 열었는데 대오를 지배하고 있던 비감을 춤과 노래와 요술로써 어느 정도 가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쟈신즈를 친 다음에도 송화강가 수림속에서 큰 규모의 연예공연을 했습니다. 지금 투사들과 력사가들이 그 공연을 신입대원들을 위한 환영공연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사실을 말한다면 공연을 조직한 목적이 거기에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오중흡의 희생으로부터 오는 커다란 비애와 상실감을 털어버리고 대오에 락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이 굉장한 공연이였습니다.

황철나무를 베여다 가설무대를 만들고 천막을 여러개 모아 풍도 쳤습니다. 언 나무여서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모포를 깔았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공연종목을 써붙였는데 합창이 없겠는가, 독창이 없겠는가, 무용이 없겠는가, 요술도 있고 하모니카 합주도 있고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막은 호각을 불어 여닫게 하였습니다.

저녁식사 후 신대원들과 구대원들, 짐을 지고온 로동자들이 다 모여 공연을 구경했습니다.

그날밤 김정숙이 ≪녀성해방가≫를 부르고 나서 춤을 추던 생각도 납니다. 춤을 출 때에는 면막뒤에서 무용곡을 불러주었습니다.

막간희극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양개에서 입대한 키다리대원과 연길에서 입대한 동무가 활동사진변사처럼 영화해설을 해서 관중들을 울리었습니다.

배뱅이굿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것을 누가 했던지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 중국인 대원은 오늘날의 막간교예배우들처럼 긴 나무다리를 타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매우 이채로운 종목이였습니다. 그 대원은 행군때마다 나무다리를 타고 다니며 대오가 지나간 다음 발자국을 메우군했습니다. 공연종목가운데는 조도언의 요술도 있었고 호궁도 들고나와 이채를 띤 신입대원들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격대생활을 보여주는 단막극이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행군도중에 짬짬이 구상하여 대본을 만든것이였습니다.

그날밤의 공연은 네댓시간이나 걸리었습니다. 그래도 관중들은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연예공연 뒤끝에 추가로 참군을 탄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락천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이 얼마나 큰 은을 내는가 하는 것은 항일혁명시절의 연예공연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 · ·



영화예술론

주체62(1973)년 4월 11일

영화예술론

주체62(1973)년 4월 11일

음악과 음향을 살려 써야 한다

사람들은 소리가 없는 현실이나 음악이 없는 생활을 알지 못한다. 자연의 조화가 있고 인간의 생활이 있는곳에는 언제나 음향과 음악이 있기 마련이다.

음악과 음향이 없는 영화에는 생동한 생활이 있을수 없으며 생동한 생활이 없으면 참다운 형상이 있을수 없다.

현실에서 사람들이 보고 듣는 형식 그대로 생활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영화에서 음악과 음향은 인간의 내면세계와 생활정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 내며 사상적내용을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돋구어 주는 주요한 형상수단이다. 정형에 맞고 깊은 뜻을 담은 음악과 음향은 영화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게 된다.

연출가는 한편의 음악과 노래, 하나의 음향으로써도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며 그들에게 깊은 정서적 감동을 줄수 있도록 작곡가, 음향효과사, 록음사와의 작업을 잘하여야 한다.

연화에서 음악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먼저 작곡가가 좋은 곡을 지어야 하지만 연출가도 음악을 잘 알고 영화에 맞게 쓸줄 알아야 한다. 연출가가 음악을 잘 알고 있으면 구상단계에서 벌써 매 장면들에 들어 갈 음악을 예상하면서 그 내용과 형식은 물론, 쓰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둘 수 있으며 음악형상에 대한 뚜렷한 안을 가지고 작곡가와 주동적으로 작업해 나갈수 있다.

연출가가 작곡가와의 작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그가 작품을 옳게 리해하고 사상적내용에 열렬히 공감하게 하는것이다. 작곡가는 작품의 사상적내용에 공감되여야 그 세계에 깊이 잠겨 들어 갈수 있고 거기에서 창작적 충동을 받아 안을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장면에 맞는 음악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그러므로 연출가는 작곡가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작품을 대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초우에서 연출가는 작곡가의 구상이 작품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음악형상에 대한 자신의 의도와 맞는가 하는것을 따져 보아야 하며 곡상과 선률의 성격, 음악의 형식과 음악을 쓰는 방법과 같은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합의를 보면서 연출의도를 정확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음악시청은 연출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다. 연출가가 시청단계를 스쳐 넘기면 합성단계에서 난관에 부닥치게 될수 있다.

음악을 들은 연출가는 영화전반과 음악과의 관계, 특히 장면과 음악과의 관계를 놓고 작곡가에게 잘된것은 무엇이고 잘못된것은 무엇이라는것을 명백히 찍어 주어야 하며 부족점을 고쳐 나갈 방도를 함께 찾아 내면서 음악형상을 장면의 요구에 더욱 접근시켜야 한다. 아무리 음악형상이 잘되였다고 하더라도 장면에 맞지 않으면 영화음악으로서는 쓸모가 없다. 음악이 좋다고 하여 그에 맞게 장면을 고치거나 바꿀수는 없는것이다. 영화에서는 음악을 장면에 맞게 써야 화면형상을 돋구면서 음악도 살릴수 있고 화면과 음악을 원만히 조화시킬수 있다.

음악을 장면에 맞게 쓰는데서 연출가는 무엇보다도 영화의 흐름과 음악이 서로 잘 맞물리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음악의 흐름과 극의 흐름이 잘 맞물려 나가야 음악이 살면서 영화의 내용을 정서적으로 돋구어 줄수 있다.

장면에 맞게 음악을 편집하는데서는 생활을 피상적으로 보고 눈에 띄우는데 따라 음악을 높였다 낮췄다 하거나 생활내용을 설명하는 식으로 음악을 기계적으로 가져다 붙여서는 안된다. 물론 분위기를 돋구는 음악도 필요한데서는 써야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음악은 주인공의 생활정서를 살리는데 복종되여야 한다.

들끓는 건설장의 생활을 노래한다고 하여 격조 높은 음악으로만 일관시킬수는 없다. 벅찬 로력투쟁이 벌어 지는 건설장에서 그 보람찬 생활을 마련하여 준 당의 은혜로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주인공의 심정을 타고 나오는 음악은 서정적곡조로 흐를수도 있을것이며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 어떤 벅찬 감격에 휩싸인 주인공의 심정을 돋구어 내는 음악은 또한 격정적인 곡조로 흐르수도 있을것이다. 연출가는 장면에서 형상의 초점을 똑바로 잡고 주인공의 체험에 따라 음악을 써야 생활을 보다 깊고 뚜렷하게 살려 낼수 있다.

영화에서는 음악을 장면에 맞게 쓰면서도 일관시켜 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음악이 들어 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주 끊어 지면 작품의 내용이 일관된 정서적흐름속에서 밝혀 질수 없고 양상도 통일되지 못하여 결국 음악형상은

조잡하게 된다.

연출가는 영화의 첫머리에서부터 마감까지 장면에 맞게 음악을 끌고 나갈수 있도록 작곡가를 이끌어 주면서 음악과 다른 형상부문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 나가야 한다.

영화에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음악을 끌고 나갈 때 인물의 대사와 겹칠수도 있고 효과음향과 맞물릴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장면의 사상적내용을 밝히는데서 주도적역할을 노는것을 살리고 보조적인것을 그에 안받침하여야 한다. 두가지 음향요소를 꼭같이 살리려고 하면 자연히 음향의 조화가 깨여 지고 형상의 중심이 살아 나지 못하게 된다.

원래 장면의 사상적내용을 밝히는데 리용되는 여러가지 형상수단들은 한 장면안에서 모두 똑같은 기능을 놀지 않는다. 어떤 장면에서는 대사에 비하여 음악이 더 큰 역할을 놀수도 있고 다른 장면에서는 음악보다 효과음향이 더 큰 작용을 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면에 따라 형상수단을 신중하게 정하고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향에 다른 음향들을 복종시켜야 한다.

음악을 일관하게 쓰는데서는 노래를 토막 나지 않게 집중적으로 쓰며 좋은 노래들을 정형에 맞게 반복하여 쓰는것도 하나의 방도로 된다.

연출가는 노래를 장면에 맞게 쓰면서도 다양한 화면들의 흐름을 따라 노래가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좋은 노래는 여러 장면에서 생활정형에 맞게 반복하여 쓸수록 작품의 내용을 정서적으로 더욱 풍부하게 돋구어 주며 노래자체도 그만큼 살아 나게 할수 있다.

영화에서 음악을 일관시키는것이 좋다고 하여 계기도 없는데 음악을 줄수는 없다. 계기가 충분히 지어 지지 않는데서 음악이 울리면 싱거워 질뿐아니라 장면의 형상도 어색해 진다. 음악이 나올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진 다음에 음악을 써야 화면도 살고 음악도 살며 관중은 안정감을 가지고 음악을 들을수 있다.

음악이 울릴수 있는 계기는 내용과 형식의 두 측면에서 다같이 주어 져야 한다. 어떤 장면에서나 음악이 자연스럽게 나오자면 사건발전의 전제가 있어야 하고 인물의 사상감정의 축적이 있어야 하며 생활분위기도 조성되여야 한다. 그뿐아니라 화면들과 장면들의 련계도 잘 지어 져야 하며 화면공간의 깊이와 폭도 알맞게 되여야 한다.

연출가는 영화에 들어 가는 여러가지 음악과 노래를 장면에 맞게 쓰면서 음악형상이 통일적으로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음악과 노래들이 아무런 련관도 없이 나오면 음악형상전반에서 조화가 이루어 질수 없다. 영화에서는 주제곡과 주제가를 중심으로 다른 음악과 노래들을 통일시켜야 전반적음악형상에서 정연한 조화를 이룩할수 있다.

연출가는 음악과 노래를 잘 쓰는것과 함께 음향을 살려 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영화에서 음향은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대신하여 그들의 사상과 감정, 심리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펼쳐 보일수도 있고 생활환경과 분위기를 정서적으로 생동하게 돋구어 줄수도 있다. 또한 음향은 이야기를 전개시키며 화면과 화면을 이어 주는 계기로 쓰일수도 있고 다른 형상요소들과 결합되면서 감정조직을 하는데 쓰일수도 있으며 영화의 흐름을 조성하는데 작용할수도 있다. 영화의 음향형상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는 문제는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연출가가 영화에서 진실하고 의의 있는 음향형상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음향에 대한 깊고 폭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출가는 생활의 뜻을 나타낼수 있는 다양한 음향들을 많이 새겨 두어야 하며 그 하나하나의 음향들이 어떤 생활적인 뜻을 담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어떤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수천톤의 짐을 끌고 구내로 들어 서는 전기기관차의 경쾌한 기적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경적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무사고주행을 알리는 승리자들의 긍지 높은 웨침으로, 새로운 로력적앙양에로 부르는 격동적인 호소로 듣는다. 로동을 사랑하며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보람찬 로동과정에서 울리는 음향들이 순수한 기계소리로만 느껴 지지 않는것이다. 사람들이 창조적로동과정에서 울려 나오는 음향을 장엄한 교향곡에 비기군 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사람들은 또한 자연의 아름다운 음향을 들으면서 생활적인 정서에 잠기기도 한다. 새 봄을 알리는 종달새의 지저귐을 들으면서 밭갈이하는 봄의 정서를 느끼며 깊은 밤에 홀로 우는 소쩍새소리를 들으면서 쓸쓸한 기분에 싸이기도 한다.

현실의 다양한 음향들이 사람들의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것은 그것이 모두 인간생활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기때문이다. 이러저러한 음향들이 구체적인 생활과 결부되면서 어떤 뜻을 나타내는가를 잘 알고 있는 연출가는 음향을 의의 있게 쓸수 있으며 하나의 음향을 써도 우리 인민의 정서에 맞게 쓸수 있다.

연출가는 현실체험과정에 익혀 두고 새겨 둔 음향들을 실지 영화의 장면에 맞게 쓸줄 알아야 한다. 음향은 장면에 맞아야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펼쳐 보이며 그들의 생활환경을 전형화하는 기능을 놀수 있고 생활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그려 내면서 장면의 형상에 생기를 줄수 있다.

연출가는 장면에서 울릴수 있는 다양한 음향들가운데서 생활정형에 맞는 가장 주되는 음향을 살려 써야 하며 그것을 통하여 인물의 내면세계를 보여 주고 생활환경과 그 분위기를 특징지어야 한다. 그래야 화면과 음향의 조화로운 통일을 이룩할수 있고 음향의 형상적기능을 높일수 있다.

음향을 장면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울리는 음향들을 예술적으로 다듬어 쓰는것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울리는 모든 음향이 다 예술적인 음향으로 되는것이 아니

며 또한 그것이 모두 영화에 그대로 복사되여야 하는것도 아니다. 연출가가 번개 치면 우뢰가 울것이고 기차가 달리면 차바퀴소리가 들릴것이라는 식으로 음향세계를 리해하고 대한다면 영화에서 의의 있는 예술적음향이 울릴수 없다. 영화의 음향은 어디까지나 형상화된 음향으로 되여야 한다.

연출가는 장면의 요구와 형상의도에 따라 음향을 예술적으로 다듬어야 하며 자연음향의 크기나 높낮이 같은 음향요소들을 변형시켜야 한다. 그러나 매개 음향에 고유한 색갈은 변형시키지 말아야 한다. 음색이 변하면 음향형성의 특색이 없어 지므로 자연음향의 모든 요소들을 장면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키면서도 음색만은 오히려 두드러지게 살려야 한다.

음향을 장면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생활내용과 음향의 특성에 따르는 형상수법을 잘 적용하여야 한다. 영화에서는 음향의 크기를 의식적으로 확대하거나 과장하여 쓸수도 있고 화면에서 울릴수 있는 모든 음향을 다 죽이고 오직 하나의 음향만 살려 쓸수도 있으며 한 화면에서 모든 음향을 완전히 누를수도 있다. 문제는 연출가가 다양한 음향형성수법을 장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음향의 자연적성질에 맞게 어떻게 잘 쓰는가 하는데 있다.

영화의 음향형상은 음향효과사와 록음사의 손에서 직접 창조되는것만큼 연출가는 그들과의 작업을 잘해야 한다. 그러나 연출가는 음향작업에서 기술실무에 빠져서는 안된다. 영화에서 음향형성은 복잡한 기술공정을 거쳐 이루어 지지만 기술실무적인 사업은 연출가가 할 일이 아니다.

음향은 예술이다. 연출가는 음향의 형상방향과 장면과 음향과의 관계, 음향의 선택과 그 형상처리 등 언제나 예술적문제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음악과 음향 형상의 묘리에 정통하고 이 분야를 맡은 예술가들과의 작업을 잘할줄 아는 연출가만이 색갈이 선명하고 화면과 조화된 진실한 음향형상을 훌륭히 창조해 낼수 있다.

음악이 없는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

영화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려면 깊이 있고 내용이 풍부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하며 좋은 음악과 노래가 있어야 한다.

음악과 노래가 없는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

영화에 음악과 노래를 넣는것은 생활의 요구로 보나 영화의 특성으로 보나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본래 음악은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로동과정에서 나와 생활속에서 발전하여 온, 인민에게 가장 친근한 예술이다. 모든 예술이 다 생활속에서 나왔지만 특히 음악은 무용과 함께 직접 로동과정에서 나오고 또 로동과정에서 불리워 온것으로 하여 그 어느 예술보다도 생활과의 련계가 깊다.

생활이 있는곳에는 음악과 노래가 있기마련이다. 더우기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이 그대로 창조의 기쁨으로 되고 생활이 곧 아름다운 노래로 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어디를 가보아도 근로자들이 일하며 생활하는곳에서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예로부터 남 달리 노래와 춤을 즐겨 하는것은 력사적으로 이루어 진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의 뚜렷한 표시이며 고상한 예술적지향의 반영이다.

영화를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비위에 맞게 만들려면 마땅히 인민대중이 즐겨 부를수 있는 훌륭한 노래들을 많이 넣어야 한다. 영화에 음악과 노래가 없으면 생활이 메마르고 딱딱하여 볼 재미도 없게 될것이며 따라서 그런 영화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것이다.

좋은 노래와 음악은 영화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

음악은 인간의 내면세계와 체험을 깊이 있게 펼쳐 보여주며 인간생활에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정서와 약동하는 생기를 안겨 주는 고상한 예술이다. 영화에서 음악은 생활을 정서적으로 더욱 생동하게 돋구어 줌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여 주는데 이바지한다.

사람들은 화면을 통하여서도 영화의 사상적내용을 리해할수 있지만 거기에 음악이 울리면 생활감정이 더 풍부해 지고 예술적감흥도 더 커져 그만큼 깊은 감명과 정서를 가지고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받아 들이게 된다. 영화에 음악과 노래가 없으면 대화극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것도 이때문이다.

영화에 훌륭한 음악이 들어 갈 때 작품에는 뜨거운 열정과 정서가 흘러 넘치게 되고 그 사상적내용도 더욱 생동하게 살아 나게 된다.

영화에 좋은 노래와 음악이 들어 가면 인물들의 사상감정도 더 섬세하게 살아 날수 있고 그들의 성격발전 과정도 더욱 뚜렷하게 그려 질수 있는것이다.

예술영화 ≪피바다≫에서 철창속에 갇혀 고생하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 오는 장면에는 인물들의 대사도 없고 특별히 눈에 뜨이는 행동도 없지만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를 통하여 어머니의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직성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영화에서 음악은 시대와 사회제도의 본질, 민족적특성을 나타내는데서도 큰 역할을 논다. 영화에서 사회력사적환경 같은것은 미술가가 직관적으로 섬세하게 그려 내지만 시대와 사회제도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간명하게 밝혀내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데서는 음악을 따르지 못한다.

영화에서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 진 기성음악을 쓰는 방법으로도 시대와 사회제도의 특징과 인물들의 생활정형을 생동하게 그려 줄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생활이나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생활이 벌어 지는 장면에서 그때 인물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은 당시의 생활정형을 생생하게 돌이켜 보게 되며 많은것을 생각하게 된다.

영화에 훌륭한 음악을 넣는것은 대중속에 음악을 널리 보급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영화에 나오는 훌륭한 노래들은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 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노래들을 부르면서 영화의 주인공들과 함께 살며 일하며 싸워 나가고 있다.

우리 영화에서는 될수록 음악과 노래를 많이 써야 한다. 그러나 영화에 음악과 노래를 많이 넣는것이 좋다고 하여 영화의 내용과 장면의 요구에 맞지 않고 잘되지도 못한것을 아무렇게나 넣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엇을 노래하려는지 그 대상과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고 장면의 생활정형에 어울리지 않는 음악은 영화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우리 영화에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으며 사람들에게 생활의 참다운 진리를 깨우쳐 주어 그들을 새 생활창조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키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음악, 아름답고 고상한 인민적인 음악이 있어야 한다. 인민의 아름다운 지향과 생활감정을 깊이 있고 풍부하게 담고 있으며 누구나 다 쉽게 리해하고 즐겨 부를수 있는 노래가 울려 나올 때라야 영화에 참다운 음악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영화에서는 투쟁과 전진으로 들끓는 혁명적인 생활을 안온한 분위기로 끌고 가는 노래를 써서는 안된다. 영화에서는 낡고 반동적인것을 쓸어 버리는 전투적기백, 투쟁속에서 새롭고 고상한것을 옹호하는 혁명적인 열정을 담은 음악을 많이 써야 한다.

물론 영화음악에서 정서적인것은 다 집어 던지고 전투적인것만 내세워도 안된다. 음악에서 서정적인것은 어디까지나 높은 혁명적열정과 고상한 정서를 지닌 우리 인민의 내면세계에서 우러나오는것이여야 하며 전투적인것 역시 메마르고 공허한 웨침이 아니라 고상한 사상감정과 아름다운 정서로 안받침된것이여야 한다. 이때라야 영화음악은 사람들을 보람찬 생활과 투쟁에로 부르는 힘 있는 예술로 될수 있다.

영화음악이 진실로 영화의 사상예술성을 높여 주는 음악, 인민대중을 창조와 혁신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키는 음악으로 되려면 작곡가가 시대의 선구자, 열렬한 혁명가로 되여야 한다. 진실하고 힘 있는 음악형상은 작곡가의 높은 사상의식과 불 타는 열정, 풍부한 정서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시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인간과 생활에 대한 사랑이 없이 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을 개념적으로만 파악한 작곡가는 음악에 일반적인 표상밖에 그려 놓지 못한다. 뜨거운 열정과 고상한 정서를 가지고 인간을 깊이 파악할줄 아는 작곡가만이 천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며 그들이 즐겨 부르는 심오하고 훌륭한 음악을 창조할수 있다.

영화의 노래는 인민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훌륭한 노래로 되여야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 질수 있으며 영화와 대중을 잘 련결시켜 줄수 있다. 훌륭한 노래로 하여 영화형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오래오래 살아 남게 되는것이다.

들을수록 좋고 인상 깊은것이 명곡이다

훌륭한 영화에는 좋은 노래가 있고 좋은 노래는 영화를 더 유명하게 만든다. 좋은 노래는 영화의 사상예술성을 높여 줄뿐아니라 대중속에 널리 보급되면서 커다란 교양적역할을 놀게 된다.

≪피바다≫의 노래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나 ≪꽃 파는 처녀≫의 노래 ≪혁명의 붉은 꽃이 만발해 가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노래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사람들속에 널리 불리워 지게 되였다. 그것은 들을수록 더 듣고 싶고 부를수록 또 부르고 싶은 노래이기때문이다. 이처럼 영화의 음악과 노래는 명곡으로 되여야 한다.

들을수록 좋고 인상 깊은것이 명곡이다.

훌륭한 음악과 노래는 높은 사상이 뜨거운 열정과 융합되여 울리는것이 특징이다.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창작된 ≪혁명가≫는 오늘도 우리 인민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면서 널리 불리우고 있는 명곡이다. ≪혁명가≫를 부르면 힘이 솟고 용기가 나는것은 뜻 깊은 사상이 뜨거운 열정을 타고 울려 나오기때문이다.

음악과 노래는 사상이 깊고 감정이 강렬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 잡을수 있고 그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 줄수 있다. 아무리 아름답고 유순한 선률로 곡을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 의의 있는 사상이 담겨 져 있지 않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정서적힘이 없다면 널리 불리워 질수 없다.

음악형상의 가치는 거기에 담겨 진 사상에 있다. 그러나 음악에서는 의의 있는 사상도 그것이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 뜨거운 열정과 융합되여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고상한 사상이 뜨거운 열정으로 안받침되여 있는데 명곡의 독특한 매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것이다.

음악은 열정을 가지고 창작해야 한다. 음악의 사상적내용을 강화하여 주며 그 형상에 박력과 생기를 주는 열정

은 작곡가의 불 타는 심장에서 솟아 난다. 그러나 모든 작곡가들이 한결같이 열정을 가지는것은 아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고 생활을 뜨겁게 대하지 않는 작곡가에게서는 열정이 넘쳐 날수 없다.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작곡가에게서만 온 마음을 다해 생활을 노래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 나며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 잡을수 있는 훌륭한 음악이 나올수 있는것이다.

노래는 선률이 유순하고 아름답게 되여야 한다. 그래야 노래가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듣기 좋고 부르기 헐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어렵게 만들어야 마치 예술성이 높은것처럼 생각하는데 다른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음악도 인민대중을 위한것이므로 인민들이 좋아하는것이라야 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노래는 인민을 위해서 만드는것이다.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수 없고 까다로와 부르기 힘든 노래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으며 따라서 오래 전해 질수도 없다. 예술성이 높은 노래를 짓는다고 하면서 대중이 알아 들을수 없게 선률을 꼬며 쓸데없이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높이 지르게 하는것은 노래를 위한 노래로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우리 인민은 원래 노래에서도 유순하고 은근한것을 좋아하였으며 번잡하고 까다롭거나 겉치레를 하면서 멋부리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을 거쳐 이루어 진 우리 인민이 고유한 예술적 정서는 인민음악인 민요에 뚜렷이 체현되여 있다. 훌륭한 민요들은 다 짧고 간결하며 알기 쉽고 부르기 헐하다. 거기에는 쓸데없는 장식이나 멋부림이 없고 까다롭고 변덕스러운것이 없다. 한번 들으면 따라 부르고 싶고 부를수록 인상이 깊어 지며 뜻이 새로와 지는데 인민음악의 특성이 있고 참다운 예술적가치가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수많은 혁명가요들은 오늘도 우리 인민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 있게 추동하는 투쟁의 노래로 불리우고 있다. 작곡가들은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공산주의투사들에 의하여 창작된 혁명가요의 특성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 모범을 본 받아 참말로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훌륭한 노래들을 창작하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기울여야 한다.

영화음악을 진실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곡으로 되게 하려면 인민적절가의 우수한 형식에 의거하여야 한다.

음악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현 시대는 절가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하는 시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시대에는 인민대중이 다 알아 듣고 즐겨 부르는 전투적이며 통속적인 절가를 내세우고 발전시켜야 한다.

절가는 오랜 세기를 거쳐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념원을 소박하고 세련된 형식속에 담아 온 가장 우수한 인민의 노래이다. 이런 절가형식을 살리면서 영화음악을 지어야 인민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곡을 쓸수 있다.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감정과 인민적인 형식이 조화롭게 결합된 음악만이 명곡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음악에서는 또한 내용과 형식이 통일되고 사상성과 예술성이 잘 결합되여야 한다.

잘된 노래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빈틈없이 어울려 있으며 가사와 곡도 맞물려 있어 가사를 읽어 내려 가느라면 벌써 곡이 자연스럽게 안겨 오고 곡을 부르느라면 가사가 절로 떠오르게 된다.

내용이 풍부하고 뜻이 깊으면서도 간결하고 세련된 가사에서 명곡이 나온다. 가사가 시화되지 않고 대사처럼 되면 곡도 대화창처럼 되기 쉽다. 작곡가는 생활을 깊이 탐구하고 풍부하게 체험하며 가사의 시정신에 열렬히 공감할 때 참신하고 훌륭한 곡상을 잡을수 있다.

가사는 아름답고 세련된 시로 되여야 한다. 설명과 미사려구가 많은 가사는 글자수가 많고 번잡해서 곡을 붙이기 힘들뿐아니라 선률을 붙여 놓아도 아무런 정서적감흥을 주지 못한다. 가사의 글귀마다에 깊은 뜻이 깃들어 있고 한두 줄의 시행속에도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큰 사상이 담겨 져 있어야 곡을 잘 붙일수 있고 곡의 뜻과 감정도 웅심깊게 될수 있다.

노래에서 가사와 곡은 예술적으로 잘 조화되고 통일되여야 한다. 이것은 절가창작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며 노래를 유순하고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가사와 곡의 통일은 가사와 곡의 사상과 정서적색갈이 서로 맞고 곡의 음률이 가사의 운률과 맞을뿐아니라 곡의 음조가 또한 가사의 억양과 맞을 때라야 이루어 진다.

영화의 노래와 음악은 화면 없이 들어도 좋아야 한다. 영화에서 음악은 화면형상을 살리는데 복종하면서도 독자적인 형상으로 완성되여야 한다. 노래는 더욱 그러하다. 영화에서 노래는 언제나 이야기거리에 매여 있고 영화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것대로 하나의 완성된 형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잘된 노래는 화면에서 떼여 내도 얼마든지 불리울수 있는것이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노래일수록 이러한 독자성이 더 크다. 영화형상을 살리면서 화면 없이도 불리우는 노래가 진실로 잘된 노래이다.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감정으로 차넘치는 훌륭한 음악은 현실속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작곡가의 뜨거운 심장속에서만 울려 나올수 있다. 작곡가의 심장을 불태우는 열정은 책상머리나 피아노의 건반우에서는 결코 생겨 날수 없다.

작곡가의 창작적열정은 오직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인민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 가서 로동계급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따라 배우며 그들처럼 생활을 사랑하고 혁명적으로 살며 싸워 나가는 과정에서만 생겨 난다. 현실에 대한 혁명적립장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뜻 깊은 사상과 불 타는 열정이 선률에 차넘치는 음악이라야 훌륭한 음악이라고 할수 있다.

작곡가는 인민의 노래를 편성한다는 립장에 서서 그들의 창작적지혜를 따라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인민음악은 음악에 대한 인민적재능의 총화이다. 인민음악형식은 인간의 깊고도 복잡한 내면세계를 얼마든지 훌륭히 그려 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능히 웃기고 울릴수 있다. 인민음악의 선률은 명랑하고 락천적이며 부드럽고 우아하며 섬세하고 풍부한 정서로 가득 차 있을뿐아니라 강한 형상적표현력과 생기발랄한 기백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준다.

작곡가는 인민음악의 우수한 특성들을 창조적으로 살려 써야만 조선사람들의 비위와 정서에 맞는 새 시대의 혁명적음악을 훌륭히 창작할수 있다.

명곡은 노력과 재능의 열매이다. 훌륭한 음악은 우연히 만들어 지지 않는다.

작곡가는 가요와 같은 작은 형식의 곡을 짓는데도 피 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요라고 해서 쉽게 지을수 있는것이 아니다. 가요는 모든 음악의 기초이며 음악적사색의 정화이다.

작곡가는 하나의 의의 있고 아름다운 선률을 골라 잡기 위하여서도 현실에 깊이 들어 가서 끊임없이 생활을 탐구하여야 한다. 생동한 하나의 음악언어를 얻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현실의 요구를 깊이 알고 있어야 할뿐아니라 인류가 쌓아 올린 음악유산에서도 허심하게 배워야 한다. 그래야 작곡가는 일찌기 그 누구도 만들어 내지 못한 새로운 음악언어, 새로운 현실이 요구하는 특색 있는 선률을 창조해 낼수 있다.

작곡가에게는 백 곡을 지어 한 곡을 완성하는 진지한 창작태도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명곡을 창조하기 위하여 백번 써서 한 음부를 얻고 백번 다듬어 한 소절을 얻어 내는 그런 정력적인 탐구과정에 창조적지혜가 빛나게 되며 참신하고 감명 깊은 선률이 흘러 나오게 되는것이다.

노력하지 않고 재능을 닦지 않는 작곡가는 결코 명곡을 짓지 못한다.

선률은 특색이 있어야 한다

참다운 음악의 매력은 아름답고 건전한 선률에 있다.

작곡가는 선률작업을 잘해야 영화에 맞게 사람들의 사상정서교양에 도움을 주는 좋은 음악을 창작할수 있다. 선률작업은 영화의 종자와 장면의 요구에 기초한 곡상을 음악형상으로 옮기며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담보하는 작곡가의 주되는 창조사업이다.

선률은 음악의 사상정서적내용을 표현하는 기본수단으로서 음악형상의 사상예술적질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음악의 가치는 선률이 얼마나 아름답고 건전하며 특색 있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선률은 인간의 사상감정의 결정체이다. 생활에서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사상감정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충동을 받게 된다.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흥겨운 일이 생기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슬픈 감정에 휩싸였을 때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구슬픈 곡조를 부르게 된다. 이와 같이 선률은 인간의 사상감정의 충동에 따라 스스로 흘러 나오는 정서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영화음악에 인물들의 깊은 정신세계와 다양한 생활을 생동하게 담으려는 작곡가는 특색 있는 선률형상을 창조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음악의 사상정서적내용은 선률로써 표현된다. 선률을 떠나서는 음악의 사상정신적내용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뜻 깊고 인상 깊은 선률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음악에 사상과 정서가 풍만하게 넘치게 할수 있다.

물론 노래에서는 가사가 사상적내용을 직접 나타내지만 그것도 곡조를 떠나서는 살아 나지 못한다. 노래에서 선률은 가사에 반영된 사상적내용을 구현하는 기본수단이다. 가요가 기악곡으로 편곡되여 연주될 때에도 가요를 들을 때만 못지 않은 감명을 받게 되는것은 그 선률이 가사에 담겨 진 사상정서적내용을 음악적으로 훌륭히 살려내기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음악형상의 생명은 선률에 있다. 그러므로 작곡가가 어떤 선률을 찾아 내는가 하는것은 음악창작에서 언제나 근본문제로 나선다.

작곡가는 인민대중이 사랑하며 즐겨 부를수 있는 아름답고 고상하며 건전한 선률을 창조하여야 한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음악의 특징은 아름답고 고상하며 유순하고 참신한 선률에 있다. 선률의 아름다움과 풍부성은 참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상감정의 아름다움과 풍부성의 표현이다. 작곡가가 아름답고 풍만한 선률형상을 창조하려면 생활에 깊이 파고 들어 가 인간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뜨겁게 체험하여야 하며 생활속에서 선률의 싹을 찾아 내야 한다. 작곡가가 영화음악을 창조할 때에는 현실생활만 아니라 작품에 그려 진 인물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특히 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을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주인공이 지니고 있는 고상한 사상감정과 지향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그의 생활을 뜨겁게 받아 들을 때라야 작곡가는 영화의 내용에 맞는 선률의 싹을 찾아 낼수 있다.

생활이 안겨 주는 선률적표상은 다양할수 있으나 작곡가는 영화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노래하려고 하는 사상감정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할수 있는 선률의 싹을 골라 잡아야 한다. 이러한 선률의 싹은 언제나 처음부터 완성된 형상으로 안겨 오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작곡가가 생활을 탐구하고 사색을 거듭하는 과정에 그 싹은 사상정서적색갈과 형태, 진행방향이 뚜렷한 하나의 선률형상으로 완결되는것이다.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체험하는 작곡가의 심장에서 울려 나오는 선률이라야 진실하고 아름

다우며 특색 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선률은 그 정서적색갈이 명백하고 특색이 있어야 독창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음악과 노래의 색갈은 그 종류와 양상에 따라 다르게 되지만 같은 종류, 같은 양상일 때에도 작곡가의 생활에 대한 립장과 예술적취미에 따라서 독특한 색갈을 가지게 된다. 같은 행진곡조의 노래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전투적기백이 넘쳐 흐르는 선률로 가득 차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기발랄하고 락천적인 선률로 가득 차게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숭엄한 정서가 넘쳐나는 선률로 일관되게 하기도 한다.

작곡가는 창작적개성을 살리면서도 어디까지나 장면에 맞게 선률의 정서적색갈을 바로 잡아야 영화의 사상적내용을 명백하게 살려 낼수 있다.

례를 들어 인민군대의 진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구에서 활동하는 정찰병이 결정적인 시각에 적의 소굴로 들어가면서 공작원과 헤여 지는 장면이 있다고 하자. 그들은 적구의 어려운 환경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혁명동지로 매우 친숙해 졌다. 그런데 이들은 공작상 서로 헤여 지게 된다. 이때 음악의 색갈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여기서 만일 작곡가가 두 인물의 주되는 사상감정과 지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작별의 서운한 감정만 강조한다면 음악은 모호하게 될것이다. 두 인물은 원쑤를 때려부시는 성스러운 투쟁의 한길에서 모든것을 다 바쳐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려는 숭고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적의 소굴로 들어 가는 정찰병이나 그를 말없이 바래우는 공작원의 감정은 결코 애상적인것으로 될수 없다. 공작원만 보더라도 그의 가슴에는 혁명의 한길에서 몸 바쳐 싸우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여기고 적의 소굴로 들어 가는 동지의 영웅적행동에 대한 깊은 공감과 뜨거운 전우애, 성공을 축원하는 절절한 심정이 차넘치지 않을수 없다. 작곡가는 바로 이런 주인공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절절한 감정을 선률에 담고 그 색갈을 뚜렷이 살려 내야 그들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드러낼수 있고 음악형상의 정서적색갈도 장면에 맞게 할수 있다.

영화음악은 작품의 사상적내용과 인물들의 사상감정을 정서적으로 특징짓고 잘 돋구어 줄 때에만 색갈이 뚜렷한 특색 있는 음악으로 된다. 같은 로동계급을 노래하는 영화음악이라고 하여 전투적인 선률에만 치우치면 특색이 없게 될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선률은 영화에 새롭고 독특한 정서적울림을 주지 못할것이다.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발전의 론리에 따라 전투적인것도 있고 서정적인것도 있고 우람차고 장엄한것도 있고 명랑하고 발랄한것도 있어야 영화의 내용과 선률의 정서적색갈이 통일되여 들을 맛도 있고 인상 깊게 되는것이다.

작곡에서는 선률에서 새 맛이 나게 형상 수단과 수법을 새롭고 다양하게 쓰는것이 중요하다.

작곡가의 생활에 대한 개성적인 체험은 독창적인 곡상을 낳지만 그것은 일정한 형상 수단과 수법을 솜씨 있게 구사하는 과정에서만 비로소 선률형상으로 실현될수 있다. 곡상을 특색 있게 잡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새로운 수단과 수법으로 형상하여 내지 못하면 선률에서 새 맛을 낼수 없다.

선률의 본색은 감출수 없는것이다. 작곡가가 새로운 선률을 끊임없이 탐구하지 않고 다른 작품들에서 따온 선률을 아무리 재치 있게 얼버무려 놓아도 그것은 새로운 선률로 되지 않는다. 독창성이 없는 음악을 들을 때 어디선가 들었던것과 같은 인상을 받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작곡가는 새로운 수단과 수법들을 끊임없이 탐구하여 특색 있게 씀으로써 선률형상을 매번 새롭게 강조해 내야 한다.

선률을 특색 있게 살린다고 하여 기교본위주의로 나가서는 안된다.

음악을 위한 음악, 내용보다도 형식에 치우치는 음악이 인민의 사랑을 받을수 없는것과 같이 영화에서도 작품의 내용에 맞지 않는 음악을 위한 음악은 쓸모가 없다. 영화음악작곡가의 기교는 영화의 내용에도 맞고 음악으로서도 나무랄데 없는 아름답고 건전한 선률을 창조해 내는데 있다.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에 들어 가는 음악이든지 선률이 아름답고 유순하고 건전해야 한다. 작곡가는 음악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덮어 놓고 높이 지르거나 길게 뽑는 노래는 부드럽고 연한 맛이 없어서 부르기 어려울뿐아니라 듣기에도 어색하여 우리 인민이 좋아하지 않는다.

노래는 아름답고 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순탄하게 흘러 가야 듣기도 편하고 부르기도 쉽다. 작곡가가 인민이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를 지으려면 곡을 우리 식으로 지어야 한다.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비위에 맞고 대중이 즐겨 부르는것이 우리 식 노래이다.

작곡가는 민족적선률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적미감에 맞는 새로운 선률을 창조할 때에만 우리 식의 노래를 지을수 있다. 민족적선률에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정서가 뚜렷이 체현되여 있다. 작곡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다듬어 진 민족적선률의 특성을 깊이 연구하고 그 바탕우에서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선률을 창조해야 한다.

새롭고 특색 있는 선률은 생활에 대한 작곡가의 개성적인 체험에 기초하여서만 얻을수 있다. 생활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자기 식으로 보고 받아 들이지 못하는 작곡가는 작곡에서 자기의 창작적개성을 살릴수 없으며 특색 있고 인상 깊은 선률형상을 창조할수 없다.

좋은 음악은 영화를 특색 있게 살려 준다. 작곡가는 생활을 뜨겁게 체험하고 옳바르게 받아 들이면서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고 시대정신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선률

을 창조하는데 모든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사가 좋아야 곡이 잘된다

노래는 음악가운데서 가장 작은 형식이지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데서는 그 어느 음악도 따를수 없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교향악은 듣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로 느껴 지며 지어 서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래는 선률과 함께 가사를 통하여 사상감정을 직접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때문에 누구에게나 쉽게 리해되며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다.

노래는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여 언제 어디서나 불리워 지고 전해 지면서 사람들의 심장을 끝 없이 격동시키며 그들을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킨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노래의 사상정서적영향은 이처럼 큰것이다. 그러므로 영화음악에서는 노래를 잘 짓는것이 중요하다.

노래를 잘 지으려면 먼저 가사를 잘 써야 한다.

가사는 곡의 사상예술적기초이다. 가사가 좋아야 곡이 잘된다. 명가사에서만 명곡이 나올수 있다.

가사는 시적이면서도 사상적내용이 풍부하게 되여야 한다. 아름답고 세련된 시형식에 사상적내용을 풍부히 담는것은 고상한 예술성과 높은 사상성이 결합된 가사를 창작하는데서 기본요구로 된다.

가사의 생명은 의의 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형식으로 밝혀 내는데 있다. 어떤 사상적내용을 얼마나 높은 시형상으로 그려 내는가에 따라서 가사의 질과 곡의 사상예술성이 좌우된다.

영화음악의 가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우리 영화의 성격에 맞게 혁명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물론 장면의 내용에 따라 인민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반영할수도 있고 자연을 노래할수도 있다.

그러나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노래하는 경우에도 그저 즐겁고 행복하다는 한가지 감정만 강조해 놓으면 향락주의로 떨어 질수 있다. 가사에서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노래할 때에도 사람들이 지난날의 비참했던 처지를 잊지 않도록 하며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오려는 지향과 열정으로 가슴을 불 태울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자연을 노래하여도 그 자연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을 보여 주며 우리 인민의 혁명정신을 강조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가사도 잘 지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수 있으나 이보다 더 가치 있는것은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과 투쟁을 반영하고 그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그려 낸 가사이다.

노래가 영화의 어떤 장면에 들어 가든지 가사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새롭고 아름다우며 혁명적인것을 기본으로 담아야 한다. 생활의 본질과 인간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반영한 가사는 사상이 깊고 정서가 넘쳐 흘러서 들을수록 깊은 인상을 남겨 준다.

가사에서 생활이 제기하는 새롭고 의의 있는 문제를 담는다고 하여 시기성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사를 짓는데서 시기성만 내세우면 시대와 생활을 폭 넓게 일반화하는 내용을 담을수 없게 된다. 오늘만 부르고 마는 노래라면 예술로서는 큰 가치가 없는것이다. 인민들이 오늘도 부르고 래일도 부를수 있는 노래, 력사의 시련을 이겨 내면서 세상에 길이 전해 지는 노래라야 진실로 가치 있는 예술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가치 있는 노래를 짓자면 곡이 잘되여야 할뿐아니라 가사에 인간생활에서 가장 의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높은 시적형상으로 일반화하여야 한다.

가사는 사상적내용이 좋아야 할뿐아니라 예술성이 높아야 한다. 가치 있는 사상적내용도 높은 예술성으로 안받침되여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 줄수 없다.

가사는 훌륭한 시로 되여야 한다. 시는 노래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시가 없는 가사에서는 아름다운 선률이 흘러 나올수 없다. 옛날부터 훌륭한 시는 인민들이 사랑속에서 그대로 노래로 되여 불리워 졌다.

가사에 시가 있다는것은 정서가 있다는것을 말한다. 시에서 사상은 정서를 통해서 흘러 나와야 한다. 시형상의 힘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데 있는것이다.

가사를 시화한다는것은 세련된 시형상속에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정서가 풍부하게 흘러 넘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작시법의 요구에 따라 운이나 글귀를 맞추는것만으로는 가사에 열정과 정서가 넘치게 할수 없고 또한 사상만 호소해서는 시의 정서적작용력을 높일수 없다.

그러나 가사를 시적으로 쓴다고 하여 정치적표현을 피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정치적표현을 피하는것으로써 시형상을 높이려는것은 시의 본질을 모르는데서 오는것이다. 정치적표현을 써도 그 속에 시인의 열정이 담겨 져 있고 형상이 시적으로 되였을 때에는 강한 정서적호소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일부 가사들에서 정치성을 생경하게 로출시키는 결함은 사상적내용을 정서적으로 소화해 내지 못하는데서 생기는것이다.

가사는 간명하게 될수록 좋다. 가사는 사상감정이 뚜렷하고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게 되여야 한다.

노래는 형식이 제한되여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자연스러운 흐름속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음악이므로 가사형상이 고도로 함축되고 간결하게 되여야 곡을 붙이기 쉽고 부르기도 헐하게 된다. 가사가 절가화되지 못하면 음악구조의 특성에 맞게 시형상을 높일수 없고

따라서 노래의 사상정서적내용도 심화시킬수 없다.

가사를 간편하게 쓰려면 말하려는 사상의 핵을 틀어 쥐고 대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 사상의 핵을 바로 잡지 못하고 이것저것 널어 놓으면 어느 한가지 사상도 살아 나지 못하여 가사의 내용에 중심이 없게 된다. 시인들은 자기가 체험한 생활감정가운데서 오직 정수적인것만 담아야 하며 그것을 함축된 시어로 간결하게 형상해 내야 한다.

사상감정의 정수를 담는 경우에도 그것을 산문식으로 서술해 놓으면 형상이 간명해 질수 있다. 가사에서 설명은 결코 사상을 강조하지 못할뿐아니라 시적형상을 죽여버린다. 사상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빙빙 에도는것도 가사의 형상성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된다.

가사를 간명하게 쓰려면 시어를 잘 다듬어야 한다. 생활에서는 한가지 사상감정을 이렇게도 나타낼수 있고 저렇게도 나타낼수 있으나 가사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다. 뜻이 명백하지 않고 정서적색갈이 뚜렷하지 못한 시어들이 라렬되면 그것은 시적인 가사라고 할수 없는것이다. 어떤 사상감정이든지 그 표현이 정확하고 섬세하고 예리해야 색채가 명백해 질수 있다.

언어작업에서는 시어를 잘 골라 내는것과 함께 음악적 흐름에 맞는 시문장을 잘 짓는것이 중요하다. 시적인 어휘라고 해도 제자리에 놓이지 못하면 뜻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 가사의 문장구조는 말하려는 사상감정의 핵을 뚜렷이 살리면서 알기 쉽고 명백하게 되여야 하며 유순하고 운률적으로 되여야 한다. 그리고 가사에서는 서술식문장을 끌어 들이지 말아야 한다. 시형상에서 서술식문장은 금물이다.

아름답고 풍부한 우리 말은 참다운 시어의 무진장한 원천으로 된다. 우리 조선말은 표현이 매우 풍부하여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감정이든지 능히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다. 가사를 짓는 사람은 조선말에 정통하여야 하며 인민들속에서 다듬어 진 새롭고 아름다우며 문화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배워 나가야 한다. 인민이 쓰는 말속에 참다운 시어가 있다. 시인이 인민의 언어생활에 튼튼히 의거하는것은 가사의 언어표현을 섬세하고 풍부하게 하며 세련시키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

가사에서는 시어를 잘 고를뿐아니라 운률을 잘 조성해야 한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 서정시가 읊는 시라면 가사는 부르는 시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가사의 운률은 류창한 선률의 흐름을 타고 불리워 질수 있게 순탄하고 평이하게 되여야 한다. 가사의 흐름에서 흐름이 지내 급하거나 처져서는 안되며 더우기 딱딱 끊어 져서는 안된다. 쉬운 말을 골라 써도 운률을 타고 흐르지 못하면 시문장이 까다로와 진다.

가사의 운률이 지내 조급하게 흐르면 사색할 여유가 없고 순한 맛도 나지 않아서 경박한 노래로 되며 반대로 운률이 지내 처지면 감정흐름에 굴곡을 주지 못하여 맥 빠진 노래로 된다.

가사를 쓰는데서는 까다롭거나 변덕스러운것, 맥 빠지게 흥얼거리는것 등 시대감정에 맞지 않는 이색적이며 복고적인 운률투를 경계해야 한다. 본래 우리 인민은 숨가쁘게 까불거리거나 맥 빠지게 느린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시인은 혁명하는 시대에 맞는 기백 있고 고상하며 발랄한 새로운 운률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야 한다.

가사는 알기 쉽고 곡에 맞추어 부르기 헐하게 되여야 한다. 이러한 가사에서만 인민의 사랑을 받는 명곡이 나올수 있다.

노래에 담겨 져 있는 사상적내용이 좋아도 인민이 리해하지 못하고 부르기 어려운 노래는 교양적작용을 놀수 없다. 인민이 받아 들일수 있는 노래를 지으려면 곡도 잘되여야 하지만 먼저 가사를 알기 쉽고 부르기 헐하게 써야 한다. 가사가 어렵게 되면 곡도 자연히 힘들게 된다.

가사를 통속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뜻이 깊은 사상적내용을 쉬운 말로 표현하는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혁명가요들을 보면 모두 사회정치적성격을 띠는 심각한 사상적내용을 담고 있지만 누가 들어도 그 뜻을 쉽게 알수 있게 되여 있다.

가사는 인민들속에서 친숙하게 쓰이는 말을 뜻에 맞게 잘 골라서 써야만 누구나 다 쉽게 알수 있으며 부르기도 헐하게 된다.

가사에서는 쉬운 말을 골라서 쓰는것과 함께 매 시구들을 자연스럽게 엮는것이 중요하다. 혁명가요의 시어들은 사람들에게 친숙해 진 인민적인 어휘일뿐아니라 시구들이 인민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관습에 준해서 쉽게 엮어져 있다. 이런 시구들은 회화어에 가까우면서 시에만 고유한 운률을 자연스럽게 살리고 있기때문에 언제나 생활어와 같이 감칠맛이 있고 늘 읊어 보고 싶은 충동을 주는것이다.

영화에서 가사는 화면과 장면의 내용에 따라 맞아야 한다. 노래는 어디까지나 영화의 사상적내용을 돋구어 주는데 복종되여야 하는것만큼 가사를 화면과 장면의 내용에 맞게 써야 곡도 화면과 장면에 맞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가사가 화면과 장면에 담긴 내용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직선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그 내용을 깊고 폭 넓게 밝혀 낼수 없으며 따라서 영화의 사상성을 높여 줄수도 없다.

가사에서는 화면의 사상적내용을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깊이 있게 형상화하여야 한다. 가사를 형상적으로 쓰면 화면내용에 많은것을 보태여 줄수 있으므로 영화의 주제사상을 심화시킬수 있을뿐아니라 노래가 대중의 사랑속에 더 많이 불리워 질수 있다.

가사는 화면과 장면의 형상과제를 해결하는데 복종하면서 본질적인 사상을 담아야 한다. 한 장면에 여러가지 사상이 제기될수 있지만 장면에서 이야기되는 여러 갈래의 사상을 모두 가사에 담을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저러

한 사상을 다 담으면 장면을 설명하는데로 떨어 지게 된다. 가사가 인물들의 대사내용을 되풀이하고 행동이나 설명하는 식으로 되면 장면의 기본사상을 형상화하는데 노래로써 새롭게 보태여 주는것은 없게 된다. 가사는 장면의 기본사상을 깊이 있고 폭 넓게 담아야 작품의 사상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가사가 좋아야 곡이 잘되고 노래가 잘되여야 영화형상도 높아 지게 된다.

음악은 장면에 맞아야 한다

영화에서 음악은 장면의 내용과 생활정형에 맞게 되여야 한다. 좋은 음악이라도 장면에 맞지 않으면 잘된 음악이라고 할수 없다. 장면에도 맞고 음악으로서도 잘된것이 훌륭한 영화음악이다.

음악을 장면에 맞게 넣는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옳게 결합된 훌륭한 영화를 만드는데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아무 때, 아무데서나 좋은 음악이란 있을수 없다. 로동할 때에는 로동에 맞는 노래가 있어야 하고 적과 싸울 때에는 전투에 맞는 노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로동가요가 따로 있고 군가가 따로 있는것이다. 시대정신에 맞을뿐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정형에 어울리는 음악이라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영화에서도 장면들의 사상적내용이 다르고 생활정형이 같지 않기때문에 아무 장면에나 맞는 음악이란 있을수 없다. 좋은 음악이라도 장면의 요구와 구체적인 생활정형에 맞게 씌여 지지 못하면 영화의 사상적내용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인물의 사상감정을 담고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음악은 영화에 많은것을 보태여 주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준다. 장면과 하나로 어울려 나오는 음악은 영화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여 주며 커다란 예술적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 진다.

영화에서 음악은 무엇보다먼저 작품의 내용에 맞게 되여야 한다.

영화에서는 여러가지 음악이 서로 다른 장면에서 다양하게 쓰이게 된다.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이 서로 다르고 장면마다 사건내용과 정황이 다른것만큼 영화에 쓰이는 음악이 다양하게 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영화의 내용에 맞게 음악을 쓰자면 먼저 주제가를 잘 써야 한다. 주제가는 영화음악에서 중추를 이룬다. 그러므로 주제가를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쓰는가 하는 문제는 영화음악전반의 수준과 그 정서적색갈을 규정하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주제음악을 영화의 내용에 맞게 지으려면 작품의 주제사상과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뚜렷이 그려 내야 한다. 작품에는 여러가지 사상감정의 색채가 있으나 그 가운데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주인공의 생활로부터 흘러 나오는것이다. 그러므로 주제음악이 주인공의 사상감정의 색채에 맞게 작곡되여야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혀 내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할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의 사상감정을 살린다고 하여 그의 개성을 강조하는데만 치우쳐서는 안된다. 주제음악은 주인공이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제도의 본질을 반영하며 그가 속한 계급의 생활감정과 지향을 폭 넓게 일반화하여야 작품의 주제사상을 심화시켜 줄수 있다.

작곡가는 인물들의 사상감정세계에 관심을 돌리면서 그것을 낳게 한 사회적내용을 밝히는데 형상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작곡가가 인물의 개인적인 사상감정세계에만 매달리면 성격의 본질을 폭 넓게 드러낼수 없으며 시대와 인민에 대하여 똑바로 말할수 없다. 영화의 주제사상을 뚜렷이 특징지으며 주인공의 사상감정을 깊이 있게 그려내는 음악이 작품의 내용에 맞는 훌륭한 주제음악이다.

주제음악으로 영화의 내용을 돋구어 주려면 작곡을 잘해야 할뿐아니라 요긴한 장면에서 뜻 깊게 울려 나오게 하여야 한다.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혀 나가는 중심위치에 서 있는 주인공의 생활발전에서 그의 정서적체험이 고조에 이를 때 극은 주제음악을 요구한다. 주제음악은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혀 나가는 주요국면에 들어 가야 하지만 주인공의 사상정신적발전에서 일정한 정서적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줄수 없다. 그러므로 주제음악을 잘 쓰기 위해서는 연출가와 작곡가가 음악을 넣을 위치를 확정하는 동시에 주제음악이 울릴수 있는 극적구성과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영화에서 잘된 주제음악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반복하여 쓰는것도 음악의 역할을 높이는 하나의 방도로 된다. 주제음악을 반복하여 쓰는것은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혀 나가는데서 인상 깊은 형상적력점을 찍어 주며 주인공의 사상감정세계를 진지하게 파고 드는데서 좋은 효과를 얻을수 있는 방법인것이다.

극이 발전하여 나가는데 따라 주인공의 사상정서적체험에서 고조를 이루는 국면은 여러번 조성될수 있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정서적국면들을 정확히 포착하여 주제음악을 잘 살려 쓰면 섬세하고 인상 깊은 형상을 창조하여 낼수 있다.

예술영화 ≪피바다≫에서는 주제가인 ≪피바다가≫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반복하여 씀으로써 작품이 주제와 사상을 극발전에 따라 일관하게 강조하고 사상정서적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고 있다.

영화에서는 주제음악만 아니라 다른 노래와 음악도 장면에 맞게 써야 한다.

음악은 이야기줄거리에 매여서 나와야 영화의 내용과

장면의 요구에 맞게 될수 있다. 음악이 이야기줄거리에 매여서 나와야 한다는것은 줄거리를 따라 음악이 시작되고 발전하여 나가면서 서로 당기고 밀어 주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성격은 발전하는데 음악이 흐르지 않거나 장면은 변하는데 음악이 그에 따라 가지 못할 때에는 장면과 음악이 서로 맞지 않게 된다.

극은 폭발점으로 치달아 오르면서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음악이 이에 따라 점차 고조되지 않고 있다가 충돌이 일어 나는 대목에 이르러서야 갑작스레 울리면 사람들이 미처 받아 들일수 없게 된다. 또 음악을 이야기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늘여 붙이거나 앞당겨 끊어 버리면 사람들의 정서를 깨뜨리고 영화의 인상을 흐리게 만든다. 영화에서 음악이 이야기에 매여 나오지 못하면 오히려 형상에 손상을 주게 된다.

음악을 장면에 맞게 쓴다고 하여 장면의 내용에 직선적으로,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해서는 안된다. 장면의 형상에서 음악이 담당하는 몫은 따로 있다. 고유한 언어로 장면의 형상에 참가하는 음악이 장면의 내용을 직선적으로 설명하거나 기계적으로 반복하는것은 종합예술인 영화의 형상적요구와는 인연이 없는것이다. 음악은 어디까지나 장면의 내용과 사상적으로, 정서적으로 일치되여야 하며 극적내용을 더욱 심화하고 예리화하는 작용을 해야 한다.

주인공이 그 어떤 어려운 처지에 빠져 모대길 때 장면과 음악을 일치시킨다고 하면서 반드시 침울하고 비장한 음악을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가 비록 어려운 처지에서 모대기지만 시련을 이겨 낼 힘을 지니고 있을 때 그리고 모든 고난을 박차고 일어 나지 않으면 안될 때에는 응당 비장하면서도 전투적기백과 열정이 넘치는 음악을 줄수 있으며 또 주어야 한다. 장면과 음악은 어디까지나 내용상으로 일치되여야 한다.

영화에서 음악은 이야기의 흐름에도 맞아야 한다. 이야기의 흐름과 음악의 흐름은 모두 하나의 생활바탕우에서 생겨 나고 결합되여야 영화전반의 조화로운 흐름을 이룰수 있다. 음악의 독자성을 살린다고 하여 이야기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게 흘러 나간다면 형상의 조화를 깨뜨리는것은 물론, 작품의 내용을 모호하게 만든다.

음악은 음악으로서의 일관한 흐름을 가지면서도 어디까지나 이야기줄거리에 맞물리면서 그 흐름에 섬세한 굴곡을 조성하는데 적극 작용하여야 한다.

영화에서 높은 격정, 숨가쁜 긴장,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겨움은 그에 알맞는 음악이 안받침될 때 완전한 예술적정서로 흘러 넘칠수 있으며 사람들은 음악의 흐름을 타고 그 정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 들일수 있다.

인물들의 사상감정과 그들의 생활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장면들의 형상이 다양해 지는것만큼 음악을 쓰는 형식과 방법도 여러가지로 되여야 음악은 영화에 맞게 될수 있다.

작곡가는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음악을 쓰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언제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창작실천에서는 좋은 곡을 지어 놓고도 그것을 쓰는 형식과 방법을 잘 골라 잡지 못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다.

음악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장면의 요구에 맞게 풀어야 한다. 장면의 요구를 생각하지 않고 음악만 살리려고 하면서 장면에 어울리지 않는 형식을 쓰면 영화는 물론, 음악도 살리지 못하게 된다. 장면에 따라 형식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격에 맞게 써야 음악은 영화에 어울리면서 그 형상을 정서적으로 뚜렷하게 돋구어 줄수 있다.

그러므로 작곡가는 어떤 형식으로 음악을 쓰겠는가, 독창을 쓰겠는가, 합창을 쓰겠는가, 관현악을 쓰겠는가 하는 문제를 장면의 사상적내용과 생활정형, 감정의 흐름과 정서적분위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야기의 흐름과 장면에 맞게 음악형식을 골라 잡고 곡의 형상수준을 높이는것은 치밀하고 섬세한 솜씨를 요구하는 창조작업이다.

연출가가 화면을 편집하듯이 작곡가도 음악을 편집해서 쓸줄 알아야 한다. 작곡가의 음악편집이란 노래와 음악을 이야기의 흐름과 장면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 쓸것인가를 결정하며 다양한 음악과 노래들을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련결하고 형상할것인가를 규정하는 일이다. 음악과 노래는 작곡가의 이러한 작업을 거쳐 장면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엇바뀌면서 잘 어울려야 영화의 사상정서적내용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영화에서는 음악을 쓸 때 배우의 연기를 눌러서 그가 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자연스럽게 그려 내는데 지장을 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영화는 행동의 예술이므로 화면에서는 인물의 행동이 중심에 놓이게 된다. 영화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음악을 다양하게 넣는다고 하면서 특별한 의도도 없이 배우에게 직접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덮어 놓고 합창이나 관현악과 같은 큰 음악형식만 쓰면서 인물의 행동을 눌러 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영화에서는 배우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노래부르는 동작만 하고 실지 노래는 화면밖에서 전문가수가 부르게 하는것보다 방창을 많이 리용하는것이 좋다. 인물들의 행동을 따라 정황에 맞게 방창을 잘 받쳐 주면 그들의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그려 낼수 있으며 생활의 론리에 따라 감정선을 더욱 고조시킬수도 있다.

영화에서는 경우에 따라 배우가 직접 노래를 부르게 할수도 있다. 생활정형으로 보아 꼭 필요한 대목에 들어 간 인물의 노래는 관중에게 특별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배우에게 무리하게 노래를 부르게 하면 연기에서 부담을 받게 된다. 방창으로 인물의 사상감정과 심리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그려 내여 영화의 사상예술적내용을 더욱 풍부화시키는것이 우리 식이다.

영화에서 음악은 제자리에 들어 가야 하고 조화롭게 흘

려야 한다. 작곡가는 영화문학이나 연출대본에서 음악이 있어야 할 대목에 그것이 예견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되였을 때 의견을 내놓고 좋은 음악을 넣어서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음악을 넣기 위해서 사건을 억지로 꾸며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음악이 있어야 할 대목에 음악이 없다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음악을 내세우기 위해서 작품의 구성을 뜯어 고칠것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극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음악을 억지로 넣을 때에는 극도 음악도 다 살지 못한다.

영화의 음악형상은 작곡가와 함께 지휘자, 가수, 연주가들의 집체적노력에 의해서만 훌륭하게 창조될수 있다. 여기서 특히 작곡가와 지휘자가 짜고 들어 형상작업을 잘해 나가야 영화의 요구에 맞는 좋은 음악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음악이 좋아야 영화가 살고 영화가 잘되면 음악도 그만큼 빛날수 있다. 화면과 음악의 조화속에 작곡가의 창조가 있고 보람이 있다.

편곡은 창작이다

영화에서는 같은 음악을 여러 장면들에서 반복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 주제가만 하여도 독창이나 합창, 관현악형식으로 반복하여 쓸 때가 있다. 한가지 음악과 노래를 여러 장면들에서 다양한 형식과 수법으로 반복하여 쓰는 경우 그 형상적역할을 높이는가 못 높이는가 하는것은 편곡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편곡을 홀시하면 영화음악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할수 없다. 일부 작곡가들이 좋은 곡을 지어 놓고도 그것을 잘 살려 내지 못하는것은 편곡을 되는대로 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 있다.

편곡도 창작이다. 편곡은 음악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며 노래형상과 연주형상을 풍부하게 하고 섬세하게 살리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같은 곡도 편곡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형상의 질이 좌우된다. 편곡이 잘되면 원곡의 맛과 색갈을 더 섬세하게 돋굴수 있으나 반면에 편곡을 잘못해 놓으면 원곡의 사상예술적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편곡을 잘해야 곡의 사상감정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음악형상의 색채가 다양하고 특색 있게 된다. 그래서 음악과 노래 형상은 편곡에 달려 있다고 하는것이다.

편곡을 잘하려면 먼저 원곡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남이 쓴 곡을 편곡할 때에만 아니라 자기가 쓴 곡을 편곡할 때에도 언제나 새로운 곡을 대하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곡의 선률상 특성과 정서의 색갈을 깊이 분석하고 형상작업에 들어 가야 한다. 원곡의 사상예술적특성을 똑똑히 알지 못하면 재간이 있어도 편곡을 절대로 할수 없다. 편곡에서는 원곡의 곡상에 따르면서 그 형상적내용을 더욱 확대하고 풍부화시키는것이 기본이다. 원곡의 곡상에 기초해야 그의 사상정서적색갈을 옳게 살릴수 있고 음악형상을 전반적으로 한 계단 더 높일수 있다. 곡상을 똑바로 틀어 잡고 나가지 않으면 편곡에서 원곡의 사상감정을 제대로 표현할수 없을뿐아니라 새 맛을 내지 못하고 류사성과 모방성에 떨어 지게 된다.

작곡가는 음악작품의 곡상을 옳게 파악하고 그것을 더 섬세하게 돋구는데 힘을 넣어야 원곡의 알맹이를 뚜렷이 살리면서 독창적인 음악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깊은 창조적사색이 없이는 편곡을 특색 있게 할수 없다. 어떤 작곡가들은 하루밤사이에 두세 곡씩 편곡하여 내놓는데 그렇게 해서는 새롭고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그려 낼수 없다.

결코 편곡은 간단하고 쉬운 창작이 아니다. 특히 영화음악에서는 편곡의 일반적요구와 함께 영화의 사상예술적특성과 음악이 들어 갈 장면과 화면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다같이 고려한데 기초하여 편곡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편곡작업을 할 때에는 음악형상에 대한 전반적구상을 똑바로 세우고 편곡이 어디까지나 기본선률을 살리며 영화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 복종되도록 하여야 한다. 작곡가의 구상이 음악과 영화의 복잡한 형상문제들을 동시에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에서 폭 넓고 깊이 있게 될수록 편곡은 그만큼 잘될수 있다.

편곡의 원칙은 기본선률을 더 잘 살리는데 있다. 원곡의 기본선률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에 따라서 편곡의 형상전반이 좌우된다.

선률을 까다롭게 이리저리 꼬거나 쓸데 없이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멋을 부리는것은 우리 식의 편곡이 아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조바꿈을 하면서 복잡하게 만드는것은 선률의 순탄한 흐름을 저애하며 사상정서적색갈을 모호하게 하는 좋지 못한 경향이다.

편곡에서는 선률의 흐름이 간결하면서도 알아 듣기 쉽게 되여야 한다. 원곡의 기본선률을 쉽고 간명하게 풀어 나가야 사람들이 원곡을 되새겨 보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세계에 끌려 들어 갈수 있다.

편곡은 또한 원곡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새 맛을 주어야 한다. 모든 음악형상이 새로와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편곡도 새로와야 음악형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질수 있다. 특히 영화에서 음악은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깊이 있게 풀어 나가는데 복종되여야 하는것만큼 반드시 원곡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새 맛이 나게 돋구어야 한다.

편곡을 특색 있게 하려면 작곡가가 주견을 가지고 편곡에서 새롭게 창조하는것이 있어야 한다. 아무런 창조도 없이 곡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몇대목을 다쳐 놓는것으로써는 새로운 형상을 창조할수 없다.

여기서 새로운 형상 수단과 수법을 골라 내여 독특하게 쓰는것도 편곡을 새 맛이 나게 하는 하나의 방도로 된다. 남들이 흔히 쓰는 수단이나 수법을 손쉽게 끌어다 리용하여서는 아무것도 새롭게 만들어 낼수 없다. 내용이 새로와도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새롭지 못하면 새 맛을 주

지 못하는것만큼 편곡자는 기본선률을 따르면서도 내용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음악의 성격과 형상에 맞게 하면서도 굴곡 있고 재미나게 하는것이 훌륭한 편곡기술이다.

영화음악에서는 반주음악편곡을 잘해야 한다. 한 영화에 여러 편의 노래가 들어 가는 조건에서 노래반주를 위한 편곡을 잘하는것은 영화음악의 형상성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반주음악편곡에서는 기본선률을 잘 살리면서 노래를 부드럽게 감싸 주어야 한다. 반주음악은 어디까지나 기본선률을 두드러지게 살리고 가사가 잘 전달될수 있게 하면서 노래를 총체적으로 돋구어 주어야 의의있는것으로 된다. 반주가 노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여 일관하게 밑받쳐 주면서 사상정서적내용을 돋구어 주지 못하면 노래형상에 보태여 주는것이 별로 없게 될뿐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주게 된다.

반주음악은 기본선률에서 새로운 맛이 나도록 형상전반을 음악적으로 더욱 풍부히 하고 윤기 나게 하는 방향에서 편곡되여야 한다.

편곡에서는 연주의 효과를 살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연주형상을 죽이고 살리는것은 편곡에 많이 달려 있다. 편곡에서 어떤 악기를 골라 쓰며 그 악기가 어떤 기능을 놀게 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기술실무적문제가 아니다. 모든 악기는 음악형상을 실현하는 기본수단으로서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 더우기 악기에는 민족적특징이 여러모로 반영되여 있기때문에 음악형상의 민족적정서를 살리는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민족 현악기와 목관악기들의 소리는 민족적정서가 매우 짙은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인민의 비위와 감정에 맞는다. 그러므로 선률의 특성에 따라 악기를 고르면서도 민족 현악기와 목관악기를 위주로 쓰는 방향에서 편곡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음악형상의 민족적정서를 풍부하게 돋구어 주는 목관악기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양악관현악편성에서 악기선택문제도 민족관현악의 경우와 같은 원칙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악에는 그에 고유한 특성이 있는것만큼 그 특성을 살리면서 조선적인 울림으로 음향을 통일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양악관현악편곡에서도 부드러운 현악기를 기본으로 하고 쇠소리가 나는 금관악기와 울림이 예리하거나 둔탁한 목관악기들은 될수록 쓰지 않는것이 좋다.

편곡에서 피아노에 선률을 많이 주는것은 우리 식이 아니다. 특히 독창반주에서는 피아노 하나만 쓰는 교조주의적방법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전기종합악기를 지나치게 람용하는 현상도 경계하면서 이 악기도 어디까지나 우리 음악의 민족적특성을 살리는데 복종시켜 효과 있게 써야 한다.

악기편성에서는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옳게 배합하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배합하여 연주하면 민족음악의 독특한 색갈이 모호해 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면적인 생각이다. 물론 갈래가 전혀 다른 악기들을 배합하여 민족적색채가 뚜렷한 울림을 얻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실지 무용 ≪눈이 내린다≫와 ≪조국의 진달래≫의 반주음악에서는 양악기로만 연주하던 종래의 틀을 깨고 해금과 바이올린을 배합하고 거기에 우리 목관악기를 섞음으로써 음악의 민족적색갈을 뚜렷이 살리여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맞는 독특한 소리를 창조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배합한다고 하여 곧 소리가 범벅이 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배합하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가 말하는 민족악기와 서양악기의 배합은 민족악기를 위주로 하고 서양악기를 조선음악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의 배합이며 민족악기의 고유한 음색이 두드러져 나오도록 우리 목관악기의 특성을 살리면서 서로 갈래가 다른 악기들을 적절히 배합하는 악기편성방법이다. 악기편성에서 주체적원칙을 지키지 않고 평균주의적으로 이러저러한 악기들을 뒤섞어 놓으면 소리가 범벅이 되여 우리 음악의 독특한 민족적색갈을 살릴수 없다.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옳게 배합하려면 조선적인 음색을 살리는데 중심을 두고 곡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악기들의 기능과 색갈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편곡을 하면서 악기를 고를 때에는 성음의 질과 노래의 양상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반주음악편곡에서의 악기편성원칙은 어디까지나 노래가 두드러지게 살아 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영화음악에서 반주를 위한 악기편성은 노래가 뚜렷이 살아 나도록 중주나 소편성을 하는것이 일반적으로 좋다.

영화음악편곡에서 작곡가는 언제나 음악이 들어 갈 영화의 구체적 화면과 장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작곡가는 화면과 장면의 요구에 따라 음악형상을 여러가지로 끌고 갈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곡의 요구를 살리면서 화면과 조화롭게 어울려야만 형상적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다. 원곡의 요구를 해결하여도 화면과 조화되지 못하는 영화음악편곡은 무의미한것이다. 작곡가는 편곡작업에서 화면의 사상과 정서, 화면의 형식에 맞게 성부를 구별하고 악기를 편성하며 음악형식과 실현방법 등을 전면적으로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편곡은 음악과 노래를 새롭게 발전시켜 화면에 그려 진 인간생활에 섬세한 색갈과 숨결을 더하여 주는 창조작업이다. 원곡만 음악이라고 하면서 편곡을 홀시하는 작곡가는 음악을 다 모르는 예술가이다. 음악형상에서 성과의 비결은 편곡에 있다. 곡도 잘 짓고 편곡도 잘할줄 아는 작곡가라야 진정으로 훌륭한 작곡가라고 말할수 있다.

령도자의 노래정치

(평양 주체 89년 5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은 노래가 많은 나라, 노래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나라이다.

조선인민에게는 민족의 자주위업을 노래로 개척하고 노래로 전진시켜 온 전통이 있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인민은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높이 부르며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였고 ≪사향가≫, ≪반일전가≫의 노래 우렁차게 울리며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광복위업을 성취하였다.

새 조국건설과 전쟁의 나날에도 ≪밭갈이 노래≫, ≪승리의 5월≫, ≪결전의 길로≫, ≪전호속의 나의 노래≫를 부르며 인민들과 군인들은 조국건설과 조국수호에 힘 있게 떨쳐 나섰다.

노래를 사상이나 총대처럼 중시하시는 독특한 노래정치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출중한 령도예술이다.

그이께서는 일찍부터 음악은 나의 첫 사랑이라고 하시며 노래를 혁명의 동행자로 삼



으시고 노래와 함께 령도의 자욱을 새겨 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과 민족앞에 다지시는 자신의 엄숙한 맹세도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노래로 피력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자신의 사상과 의지를 노래에 담으시고 노래의 힘과 위력으로 조선인민의 심금을 울리며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였다.

김일성주석의 서거로 온 나라가 비분에 잠겼을 때에도 수령의 유훈지켜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리라는 노래 ≪우리는 맹세한다≫를 안겨 주시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였다.

제국주의세력의 끊임 없는 고립압살책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속에서 조선인민이 견인불발의 의지를 안고 일떠 서게 한것도 ≪높이 들자 붉은기≫,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와 같은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들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동지애의 노래≫, ≪기다렸습니다≫,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와 같은 노래를 부르시고 들으시며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신다.

그이께서 로동자, 농민, 지식인, 병사들에게 록음기와 록음카세트를 보내주시는 은정에도 조선인민모두를 락천가로 만드시려는 그이의 노래정치의 손길이 어려 있다.

독특한 노래정치로 나라와 민족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그이의 령도로 조선인민은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 세울것이다.



주체의 예술을 창조하라

김정일장군 영도철학

주체적 음악을 건설할데 대한 **김정일**장군의 사상은 특별히 매혹적이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대들이 진정 철학을 연구하겠거든 음악을 알지어다고 했다. 철학과 음악이 깊은 연관 관계에 있고 올바른 철학이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김정일**장군의 음악관은 사람중심의 철학에 바탕한 것으로 해서 특별히 매혹적이고 성공적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연이나 노래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이나 보여주는 음악은 사실상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별로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음악은 자연을 노래하여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입장과 태도를 반영하여야 하며 아름다움을 보여주어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본연의 아름다움,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참된 인간의 사상감정의 고상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한다. (음악예술론, 6~7)≫

음악이 자연주의적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김정일**장군의 주체적 음악관이다.

음악은 인간이 창조하며 또 음악을 즐기는 것도 어디까지나 인간이다. 때문에 음악은 마땅히 인간을 위하여 복무하는 음악으로 되어야 한다. 음악이 인간을 위한 음악으로 된다는 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해나가는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반영하는 음악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간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음악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이나 노래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이나 보여주는 음악은 인간에게 쓸모가 없다.

음악은 자연을 노래하여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입장과 태도를 반영하는 음악으로 되어야 하며 아름다움을 보여주어도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음악으로 되어야 한다. 자연주의적 음악이나 센티멘탈한 음악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선율과 리듬으로 꾸며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타락하고 무맥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음악이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으로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심으로써 참다운 음악의 모습과 그 창작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찾을 수 있게 하시였다.

김정일장군의 음악관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음악이 인간을 노래하되 어디까지나 민중을 위한 음악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노래는 인민들의 감정에 맞고 듣기 좋으며 부르기 쉽게 지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선율로 엮어지는 노래가 아니라 민중의 감정에 맞고 민중이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김정일**장군의 음악관이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김정일**장군께서는 하나의 곡, 하나의 선율을 짓고 선택해도 그것이 민중의 요구와 감정, 정서에 맞는가, 민중이 부르기 쉬운가, 민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시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명곡이란 곧 민중이 좋아하고 민중이 즐겨부르는 곡이라고 하시면서 관현악을 만들어도 전문가들이나 들을 수 있는 난해한 예술지상주의적인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민중이 즐겨부르는 노래를 짓도록 하시었고 하나의 가극음악을 창작하고 선정해도 민중이 이해하기 쉽고 듣기 좋으며 민중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시었다.

1969년 2월 어느날, **김정일**장군께서는 작곡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어느 작곡가가 제일 유명한 것 같은가고 물으시었다. 작곡가들은 서슴없이 서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한 작곡가의 이름을 말씀드리었다. 그때 그분께서는 서양음악가의 음악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서유럽음악을 숭배하는 일부 전문가들 뿐이라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작곡가들이 지은 노래라도 인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명곡이 아니라고, 그런 곡들을 지은 사람은 훌륭한 작곡가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시었다. 민중중심의 음악관의 분출이었다.

이북에서 창작된 노래들이 근로자들이 누구나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자마자 전체 국민이 한결같이 부르게 되는 까닭은 그것이 민중성이 안받침된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북은 말그대로 민중음악의 천국이다.

김정일장군의 음악관에서 또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음악창작에서 민족주체적 입장이 확고히 견지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우리는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지 않는 다른 나라의 음악을 본딸 것이 아니라 주체적 입장에서 자체의 것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시었다.

남의 것, 다른 나라의 것을 본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의 감정에 맞게 주체적 입장에서 자체의 것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 이것이 음악건설에서 그분께서 견지하고 계시는 원칙이다.

나라와 민족마다 민족적 전통이 있고 또한 민족의 정서와 감정, 미적 요구가 고유한 특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음악도 주체적으로, 민족적 요구에 맞게 창조하는 것은 지극히 당위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북에서는 음악에서 주체성을 살리고 모방을 반대하며 음악을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독창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중용한다. 이북에서 민족적 정서가 짙은 훌륭한 음악이 창조되고 새롭고 현대적인 민족악기들이 창조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북의 피바다가극단과 만수대예술단이 혁명가극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을 가지고 벌인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순회공연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은 것은 가극이 민족주체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게 잘 조화된 완전무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유럽사람들은 박스에서 울려나오는 독특한 배합관현악의 선율에 매혹되어 완전히 넋을 잃었다고 한다.

일화 1 - 절가

정통과 계승



71년 7월에 혁명가극 ≪피바다≫가 창조되기 시작했는데 비서는 자신이 가극창조 성원중의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날마다 대극장에 나와서 함께 일했다고 한다. 그의 절가화이론을 이해하지 못했던 창작가들은 대본에서도 구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 주인공과 경철어머니의 상봉장면에서 부르는 노래가 그러했다. 창작가들이 경철 어머니역에게 부르게 한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았다.

나라가 없으니 고향도 없다네
내 아들 경철이마저 왜놈들이 죽였다네
왜놈의 종자들이 내 눈 앞에서
우리 경철 나무에 매달고서
시퍼런 칼을 들고 온몸에 대고
열아홉군데나 사정없이 찔러 죽였다네
그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네 찢어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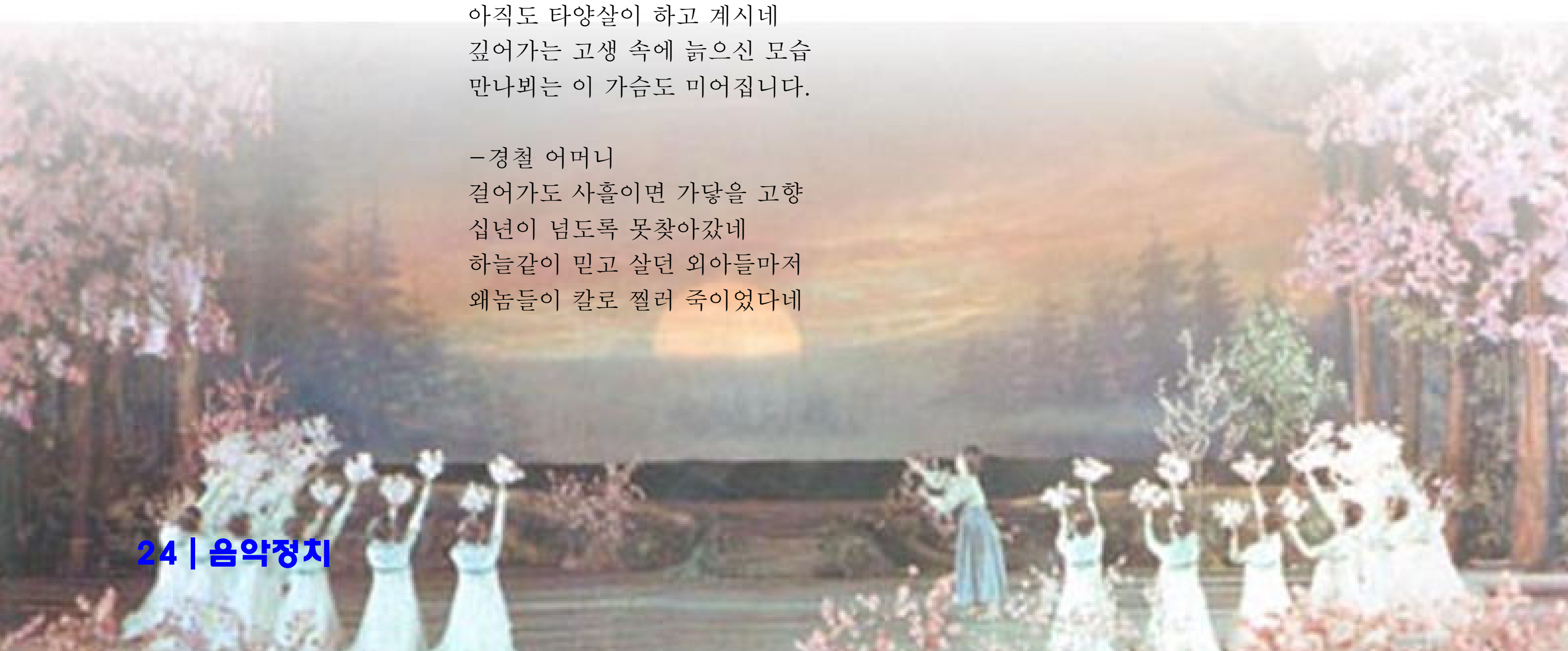
김비서는 이 노래를 듣고 웃으면서 창작가들에게 가사를 연결시켜서 속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말했고 창작가들은 저마다 속으로 외워보았다.

왜놈의 종자들이 내 눈 앞에서 우리 경철 나무에 매달고서 시퍼런 칼을 들고 온몸에 대고 열아홉군데나 사정없이 찔러 죽였다네-

그는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읽어본 가사에 운율이 있고 시가 있는가고 물었다. 이것은 절가화된 가사가 아니라 대사를 그대로 띄어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곡을 붙이기 힘들고 곡을 붙였댔자 대화창밖에는 나을 것이 없다고 비서는 지적했다. 그는 가사를 만들고 거기에 좋은 곡을 붙여야 절가가 이루어진다면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떠냐면서 다음과 같이 고친 가사를 내밀었다.

-주인공
고향으로 가신다고 떠나시더니
아직도 타양살이 하고 계시네
깊어가는 고생 속에 늙으신 모습
만나뵈는 이 가슴도 미어집니다.

-경철 어머니
걸어가도 사흘이면 가닿을 고향
십년이 넘도록 못찾아갔네
하늘같이 믿고 살던 외아들마저
왜놈들이 칼로 찔러 죽이었다네



본래는 경철 어머니가 혼자서 한절로 부르던 노래를 두절로 된 절가로 만들어 같은 곡으로 주인공과 어머니가 엇바꿔 부르는 그 장면은 맥빠진 설명으로부터 노래도 있고 극도 있는 윤택한 화폭으로 펼칠 수가 있었다.

김정일비서는 자신이 제시한 이론에 따라서 미숙한 노래들을 하나씩 절가로 완성시켰다. 여기에 바친 그의 열정은 영화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고 한다.

1장에 나오는 마을 청년들의 노래는 아홉차례에 걸쳐 50여 곡, 2장에 나오는 어느 이중창은 일곱차례에 걸쳐서 90여 곡, 3장에 나오는 복돌 어머니와 칠성 어머니의 2중창은 여섯차례에 걸쳐서 무려 100여 곡을 검토하고 골라내어 절가로 다듬었다.

또한 창작가들은 방창이라는 새로운 음악형식을 가극에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처음에는 주로 자연을 노래하거나 정황을 묘사하는데 단순하게 이용하려 하였다. 그러다보니 자유자재의 형상적 가능성을 가진 방창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비서는 방창을 활용할 적재적소를 장면에서 지적해 주고 방창에 담아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인공인 어머니가 막내아들 을남에게서 글을 배우는 장면을 형상할 때였다. 창작가들은 이 장면을 어머니와 을남이가 서로 노래를 엇바꾸어 부르는식으로 처리하였다. **김정일**비서는 이 장면을 보고나서 바로 이런 대목에 방창을 넣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글공부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서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글소리 밤하늘에 울리고
별들도 이 밤에는 잠들지 않네
꽃으로 피어날 어머니 그 마음
새 세상 내다보며 글을 배우네
아, 피눈물로 살아온 어머니
한자두자 이 한밤에 글을 배우네

어머니와 을남이가 호롱불이 어린 토방에 마주앉아 글공부를 하는 이 장면에서 서정적인 방창이 은은하게 흐르도록 함으로써 주인공들이 주고받는 노래나 행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자간의 순결한 정신세계를 감동적인 빛나는 장면으로 그려낼 수가 있었다.

창작가들은 가극창작이 계속되는 동안 여러번의 편향에 기울곤 했는데 대화창을 바로잡으면 아리아가 나오고 아라아를 억제하면 방창에 대한 몰이해가 나오는 등, 그것은 낡은 가극에 대한 끈질긴 관습과 그릇된 미학관을 극복하기 위한 힘겨운 투쟁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주체사상이 조선혁명의 특수한 역사적 현실속에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 나온 실천의 소산이었듯이 그 혁명전통을 토대로 미지의 예술을 하나둘씩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일화 2 - 음감

정통과 계승

김비서 자신이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알았고 학생 때에는 스스로 많은 노래들을 작사작곡했던 그는 음감이 예리하고 거의 전문가적일 예술적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일화들은 설명하고 있다. 연습중인 관현악단의 한 연주자가 반음이 틀리게 연주하는 것을 지적했다든가, 어느 목금연주가에게 새 악기를 선물하고는 나중에 측정계기가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로 음정이 부정확한 점을 잡아냈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숨은 이야기들이었다.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배합한 우리 식의 배합관현악단을 창조할 데 대한 **김정일**비서의 방침을 받고 어느 악단에서 한 음악작품을 형상할 때였다고 한다. 날마다 훈련에 열중하던 연주가들은 원인모를 장애에 부딪치게 되었다.

민족악기와 양악기의 소리가 잘 어우러져 흐르다가도 어떤 대목에서는 아무리 훈련을 거듭하여도 소리가 조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음악가들은 이 이해할수 없는 현상을 두고 여러차례 토의해 보았지만 끝내 그 원인을 찾아낼 수없었다. 민족악기와 양악기들이 특징상 서로 융화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편곡에서 악기배치가 잘못된 탓인지 여러 모로 따져보아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김비서가 어느날 연습장에 들렀다가 그들의 연주를 들어보게 되었는데 그는 어느 한 대목에서 연주를 멈추게 하고는 지적하는 것이었다.

≪바이올린연주가들과 소해금연주가들이 왜 활을 쓰는 법이 서로 다릅니까? 그렇게 연주하니 안삼불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해금연주가들이 어째서 활을 짧게 쓰는가고 물었다. 순간창작가들과 연주가들은 속으로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원인을 찾지못해 그렇게도 안타깝던 바로 그 대목에서 악기소리가 조화되지 않은 것은 소해금연주가들이 바이올린연주가들에 비해서 약간 활을 짧게 쓰는 데 그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소해금연주가들이 활을 길게 쓰면서 연주해보니 민족악기와 양악기 소리가 잘 배합되어 독특한 음색이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음색으로서 부드럽고 구성지며 깊은 맛이 나는 소리였다.

김정일비서는 영화에서처럼 혁명가극을 지도할 때에 가극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하였다. 그러나 그 지도는 그저 얼핏 지나는 감각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집중하여 열정적으로 검토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피바다≫에 나오는 47편의 노래를 선정하기 위하여 2,400여 곡의 노래를 들었고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노래들을 고르기 위해서 2,700여 곡의 악보와 피아노연주를 들었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 나오는 39편의 노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된 무려 1만 164편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곡을 들었다고 한다.





민족악기를 개량발전시키시어

구국전선 / 김 용 진, 주체89, 2월 21일

지난해 12월 평화친선음악회, 민족통일음악회 차로 이북을 다녀온 연예인들은 개화발전하는 북의 예술과 민족악기를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해 했다.

민족악기는 오랜 역사의 산물로서 그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감정을 깊이 체현하고 있다.

우리의 민족악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민족악기들은 다양하고도 풍부한 표현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 및 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음량과 음역, 연주에서 일련의 부족점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찍이 민족악기의 부족점을 헤아리시고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킬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민족악기들을 우리 민족의 현대적 미감에 맞게 개량발전시킬데 관해 가르치심을 주셨다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서양의 음악과 악기만을 숭상하거나 낡은 것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크게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문학예술의 탁월한 영재이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일성**주석님의 뜻을 받드시어 민족악기들을 주체적으로 개량발전시킬 확고한 결심을 하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셨다.

영도자님께서는 민족악기는 고유한 민족적 색깔이 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민족악기 개량에서 기본원칙은 매 악기의 본래의 특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셨다.

소해금의 개량에서도 처량하고 우아한 음색을 옳게 살리는 것이라고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그리하여 영도자님에 의해 마침내 소해금이 이 세상 그 어떤 악기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민족악기로 개량완성되었다 한다.

이북의 가야금, 양금 등 현악기들과 젓대, 단소, 장새납 등 목관악기들도 다 이렇게 개량완성되었다고 한다. 해금도 두줄로 되었던 것이 4줄로 되고 저해금, 소해금, 중해금, 대해금으로 나뉘어져 완전한 민족현악기조를 편성해 선율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높은 음역을 가진 장새납과 고음단소, 고음젓대가 새로 세상에 태어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중음젓대 등 목관악기들이 창안되어 민족관악기편성도 더욱 다채롭게 되었다.

실제로 이북의 개량된 민족악기들이 내는 선율은 민족적 정서를 한껏 풍기면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는 그야말로 최고봉의 선율이라 한다.

민족악기가 오랜 역사의 산물인만큼 이것을 개량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불과 몇해사이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어 말그대로 하나의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셨다. 동서고금에도 이처럼 짧은 기간에 모든 민족악기들을 현대적으로 개량하여 대민족관현악을 편성한 예는 없다. 이북의 민족관현악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독특한 음색과 울림에 경이적인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처럼 훌륭하고 우아한 민족악기를 완성해주신 **김정일**영도자님의 위대한 예술적 자질과 노고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

음악의 영재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의 발기와 지도에 따라 이북에서는 새로운 민족악기들도 많이 만들어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주체51(1962)년 여름 대학시절 군사야영을 하시던 바쁘신 속에서도 악기제작사업을 몸소 발기하시고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끝내 ≪어은금≫이라는 민족현악기를 완성하도록 하셨다.

1970년대 초에 개량완성되어 세상에 나온 새로운 민족악기 ≪옥류금≫도 **김정일**영도자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 만들어졌다.

주체62(1973)년 3월 평양대극장에 나오시어 형태를 달리하여 만든 악기들을 보아주시던 영도자님께서는 한 악기의 독특한 음색을 포착하시고 그 악기를 완성할데 관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그리고 친히 악기제작용 공구들도 보내주시며 정열적으로 지도하셨다.

그해 8월 어느날 영도자님께서는 새로 만든 악기의 연주도 보아주시며 대단히 기뻐하셨다. 이날 악기제작자들과 음악부문 간부들은 악기제작에 돌려주신 영도자님의 노고를 헤아려 영도자님의 탄생일인 2월을 의미해 ≪2월금≫이라고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영도자님께서는 잠시 사색을 모으시더니 ≪옥류금≫이라고 악기이름을 지어주셨다 한다.

≪옥류금≫은 와공후도 대신할 수 있고 가야금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민족악기이다. 영도자님께서는 그후에도 ≪옥류금≫에 자그마한 허물이라도 있을세라 끊임없이 다듬어주시고 완성해주셨으며 민족악기개량사업에 더 깊은 관심을 돌리셨다.

양악기가 범람하던 때 민족악기들이 빛을 잃지 않고 그처럼 훌륭하고 우아하게 개화발전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문학예술의 영재이시고 거장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의 위대한 공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장군님께서 좋아하시는 세계적인 명곡

구국전선 / 백 철 수, 주체89, 4월 1일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광복직후 이북의 시인 이찬이 작사하고 작곡가 김원균이 작곡한 송가이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널리 불리지면서 만민이 마음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일찍이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불멸의 혁명송가이며 세계적인 명곡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한다.

그분께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세계적인 명곡이라고 하시며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은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분의 열화같은 경모심과 명곡에 관한 독특한 이해에 바탕한 것이다.

주체58(1969)년 2월 어느날 이북의 영화음악작곡가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그분께서는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을 경모하는 우리 인민의 심정을 송가적인 품격도 있고 통속적인 군중가요의 행진곡맛도 나게 예술적으로 잘 형상한 명곡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한다.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창작된 노래들 가운데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만큼 좋은 노래는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한다.

가슴깊이 새길수록 명곡에 관한 장군님의 탁견, 그분께서 일러주시는 명곡의 표상이 하나하나 안겨오는 말씀이었다.

작곡가들은 후더운 마음으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속으로 불러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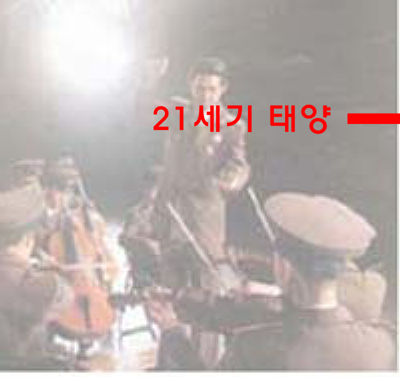
피어린 항일대전을 벌이시어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신 그분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와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경모심으로 가슴 적시게 하는 노래.

송가적이면서도 민중적 가요맛이 나는 노래여서 누구나 부르기 좋고 부를수록 흠모의 정이 차넘치어 더욱 부르게 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만민이 애창하는 세계적인 명가요를 창작한 시인 이찬과 작곡가 김원균을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한다.

그분께서는 시인 이찬에게 ≪혁명시인≫이라는 높은 칭호를 주시었고 그와 작곡가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었으며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애국열사릉에 안치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었다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일로 좋아하시는 가요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오늘 세계적인 명곡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져 만민이 애창하고 있다.







김정일총비서 설명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평양 주체 87년 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설명절에 즈음하여 1일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김하규동지,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 상장들인 리명수동지, 김윤심동지, 오금철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계응태동지, 최태복동지,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김용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리용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인 정하철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머나먼 전연시찰의 길에서 방금 돌아오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공연을 하게 된 공훈합창단 성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공훈합창단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말하여라 만경대 눈보라여≫, ≪동지애의 노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유격대 말파리 달리네≫, ≪압록강 2천리≫, ≪아무도 몰라≫, ≪훈련 또 훈련≫,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신심높이 가리라≫, ≪오늘도 7련대는 우리 앞에 있어라≫, ≪병사의 행군길≫,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 ≪높이 들자 붉은기≫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은 공연을 통하여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의 자랑찬 로정을 긍지높이 노래하였으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전투



적기상과 투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함성마냥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며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들으면서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형언할수 없는 험로역경으로 얽혀진 1997년을 위대한 락관의 해, 승리적전진의 해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의 운명이시고 수호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백절불굴의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훈합창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이 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려 전군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과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기여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도 투쟁의 기수, 힘있는 나팔수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군대와 인민을 내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인에 대한 찬가

(평양 주체 87년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조선에서 새로운 가요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올해에 들어와 ≪로동신문≫에만도 10여곡의 가요들이 소개되였다.

조선의 대중보도수단들은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과 보천보전자악단,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여러 예술단체들에서 형상한 이 가요들을 내보내고있다.



새 노래들중에는 ≪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 ≪행복의 요람≫, ≪정일봉의 밤이여≫를 비롯하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칭송한 가요들도 있다.

가요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로고를 바쳐가시는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을 반영하고있다.

조선의 음악창작가들은 지난기간 인민들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김정일**령도자를 칭송한 많은 노래들을 지었다.

지난해에도 그들은 ≪그이는 친근한 우리 아버지≫, ≪태양의 위성이 되자≫를 비롯한 수십편의 가요들을 창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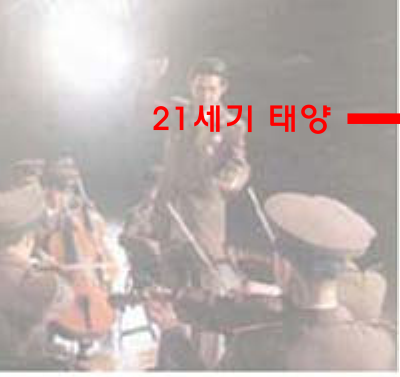
주체86(1997)년에 창작된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시대의 찬가, 위인의 찬가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1974-1993년사이에 창작되고 새로 형상된 가요들을 묶은 ≪조선가요 2, 000곡집≫을 비롯한 여러 노래집들에는 ≪친근한 이름≫,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등 그이를 칭송하는 노래들이 편집되여있다.



세계 진보적예술인들속에서도 **김정일**령도자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노래들이 창작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조선의 향도성≫(우크라이나) , ≪누구든 그분을 만나뵈시라≫(수리아) , ≪영원한 태양≫(나이제리아) 을 비롯하여 많은 노래들이 창작보급되였다.

특히 주체71(1982) 년부터 해마다 전통적으로 진행되여 오는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서 여러 나라의 예술인들은 자기들이 작시작곡한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칭송의 노래들을 무대에 올리고있다.











김정일총비서 경축공연관람



(평양 주체 87년 4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창건 66돐에 즈음하여 25일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주둔지역인민들과 함께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과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김기남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과 서만술부의장이 공연을 보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로동계급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며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건군절을 맞는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을 고무격려하시면서 조선인민군창건 66돐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공훈합창단은 ≪초소에 수령님 오셨네≫, ≪조선인민군가≫, ≪군민일치 노래부르자≫,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일총비서 여러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

(평양 주체 87년 5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첫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제549군부대, 제337군부대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차수들인 조명록, 김영춘, 리하일과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김중린과 당중앙위원회 부장 및 1부부장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근로단체 책임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은 합창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태양절을 노래하세≫, 3중창 ≪우리 장군님 높이 모시리≫, 2인대화극 ≪안해의 마음≫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자기들의 생활과 감정을 모든 작품들에 진실하게 잘 반영하였을뿐아니라 사상예술성이 매우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가족들은 조국보위의 전초선에 선 남편들의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 혁명전우로서 결전의 시각에는 남편들과 함께 사랑하는 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사수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적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온 사회에 혁명적기백이 더욱 차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번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은 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 인민의 문화수준을 힘있게 확증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적이며 대중적인 예술활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를 칭송하는 노래를 창작보급

서울 휘파람악단

(평양 주체 87년 6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이 ≪한민전≫서울시위원회의 통보를 전한데 의하면 지난 5월 20일 저녁 서울 도봉구에 있는 노래방앞벽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는 노래 ≪축하합니다≫가사가 악보와 함께 나붙어있었다.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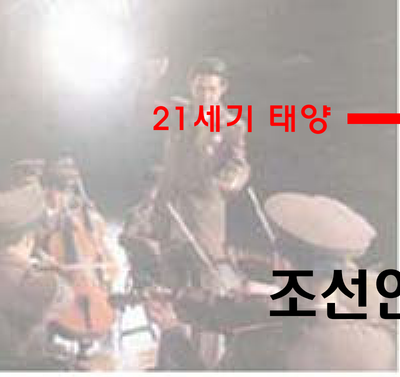


1. 한나산이 우뚝 솟아 만세를 웨치네
다도해가 설레이며 노래를 부르네
7천만이 흠모하는 **김정일**장군님
통일조선 빛내가실 민족의 령수
후렴 : 인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김정일령도자님 축하합니다

2. 하늘처럼 숭배하는 민족의 어버이
태양처럼 길이모실 운명의 수호자
7천만이 흠모하는 **김정일**장군님
통일조선 빛내가실 민족의 령수
후렴 :



휘파람악단의 명의로 된 이 노래는 삽시에 각계층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자아내고있다고 통보는 전하였다.



조선인민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 락관의 노래

로동신문 론설







(평양 주체 87년 7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20일부 ≪로동신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뭉쳐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싸워나가는 위대한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혁명의 노래를 부르며 언제나 승리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기질≫이라는 제목의 론설에서 필자는 조선인민이 항상 부르는 노래,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는 투철한 신념의 노래, 수령결사옹위의 노래이라고 썼다.

론설은 원래 조선인민은 수령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수령의 노래를 심장에 새기며 멀고도 험한 령을 넘어온 인민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이 항상 부르는 노래, 그것은 고난과 시련도 맞받아뚫고나가며 조선식 사회주의를 지켜가고 빛내여가는 창조의 노래, 투쟁의 노래이다.

조선인민은 노래를 부르며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노래소리 높이 창조하며 건설해나가는 인민이다. 지금 조선인민이 겪는 시련은 력사에 류례를 찾아보기 어려운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 며채째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경제적난관, 그것은 다른 사람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아 일어서지도 못할 엄혹한 시련의 련속이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그들의 생활에서 노래를 빼앗을수도 없었다.

론설은 노래는 투쟁하고 창조하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위훈의 자욱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항상 부르는 노래, 그것은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희열에 넘쳐 싸워나가는 희망의 노래, 락관의 노래이라고 지적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이 항상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승리하는 가장 혁명적인 인민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있는데 있다고 론설은 강조하였다.



김정일총비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경축공연 관람

(평양 주체 87년 9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50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영춘, 인민무력상인 김일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용무, 조선인민군대장들인 김하규, 현철해, 박재경과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성택, 체육상 박명철이 공연을 보았다.

공훈합창단은 ≪애국가≫,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높이 들자 붉은 기≫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조선인민군의 백절불굴의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이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 당창건53돐경축공연관람

(평양 주체 87년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11일 당창건 53돐에 즈음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과 조선인민군협주단의 합동경축공연 ≪장군님 높이 모신 병사의 노래≫를 관람하시였다.

당과 국가, 군대의 지도간부들인 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홍성남, 리용무, 계응태, 김국태, 김기남, 김중린, 김용순, 양형섭, 김윤혁, 조창덕과 당중앙위원회 부장 및 1부부장들, 내각 상들,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보았다.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과 협주단의 예술인들은 ≪조선로동당 만세≫,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과 노래와 춤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은 찬란한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발걸음 도도히 전진하는 조선 군대와 인민의 억센 기상을 그대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과 협주단의 예술인들이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총비서 공군사령부 예술선전대, 포병중대의 공연관람









(평양 주체 87년 11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27차 군무자예술축전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예술선전대와 조선인민군 제526군부대관하 포병중대 군인들의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김하규, 현철해, 장성우, 박재경, 상장들인 리명수, 오금철과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김용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장성택이 공연을 보았다.

공연무대에는 설화와 합창 ≪장군이시여 우리를 사열하시라≫, 북과기악 ≪정일봉의 우뢰소리≫, 시선동 ≪천백배로 복수하자≫, 선동이야기 ≪우리의 날개아래 평양이 있다≫, 시와 합창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위대한 령장의 품속에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과 보람찬 군무생활의 일단을 생동하게 펼쳐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씩씩하고 기백있는 공연을 보시고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 랑만과 희열에 넘치는 공연은 혁명의 기둥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인 우리 군대의 사상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억세게 보위해가고있는 강철의 대오 영웅적조선인민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자랑으로 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위력한 담보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는 사상과 도덕, 풍모에서 모범일뿐아니라 혁명적인 새 문화창조에서도 사회의 본보기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충성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희망찬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그들의 고귀한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대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광범히 벌리는것은 전투력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군인들속에서 대중적인 군중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새별회, 김정일총비서 칭송하는 노래와 시

(평양 주체 87년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이 ≪한민전≫전라북도위원회의 통보를 전한데 의하면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새별회 회원들이 노래, 시마당을 펼치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하는 노래, 시들을 발표하였다.

11월 13일 저녁에 가진 노래, 시마당에서는 ≪우리는 해빛을 안고 산다≫, ≪서울거리에 피여난 **김정일**화≫, ≪기다립니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하늘≫, ≪장군은 이긴다≫ 등 여러편의 노래와 시들이 발표되였는데 그중에서도 다음의 가사 ≪전주자랑≫은 회원들의 특별한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한다.



예로부터 전주농악 장고춤 얼싸좋고
륙자배기 한곡조도 건드러져 흥이 나오
풍류와 멋의 고장 호남도읍 전주고요
한벽당루 풍남문도 전주의 자랑일세
오백리서 군침도는 비빔밥에 지짐이요
뚝배기와 콩나물의 고향도 전주라오
물맞기 부채놀이 단오날도 전주의 날
동학란의 슬기용맹 마을마다 어려있소
명소마다 멋이 넘쳐 그자랑도 좋지만은
자랑중의 제일자랑 뉘고장에 견주겠소
배달동포 처음모신 민족의 구세주
김주석과 김장군의 본이 바로 전주라오



이날 노래, 시마당에서는 전주땅에 위대한 령도자님을 모실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조국통일성업에 더욱 매진할 결의가 피력되였다고 통보는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 군공훈합창단과 군악단의 합동공연 관람

(평양 주체 87년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24일 인민군장병들과 함께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과 군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과 인민무력상 김일철,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비서들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공연을 보았다.



합창단과 군악단은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 ≪내가 지켜선 조국≫,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



(평양 주체 88년 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는 공연을 보시고 군인들의 정신세계와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군대내에서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는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커다란감화력을 가진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며 공연활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리용무부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비서, 리용철제1부부장이 공연을 보았다.

휘파람악단이 서울에서 2.16경축공연

(평양 주체 88년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이 ≪한민전≫ 서울시위원회의 통보를 전한데 의하면 2월 16일 휘파람악단이 서울시 종로구의 어느 한곳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57돐에 즈음하여 2.16경축 노래마당을 펼쳤다.

경축공연에 앞서 발언한 악단 단장은 오늘의 경축공연은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자긍심과 영원히 그분을 우러러 따르며 그분의 만년장수를 기원하는 이남의 민심을 담은것이라고 말하였다.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막을 연 노래마당에는 3중창 ≪**김정일**장군 찬가≫, 독창 ≪2월은 우리의 자랑≫, 중창 ≪만수축배드리자≫ 등 다채로운 종목이 올랐다고 방송은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

(평양 주체 88년 4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25일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리을설원수, 김영춘총참모장과 김일철인민무력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리용무부위원장, 연형묵위원, 조선인민군 차수들인 백학림, 김익현, 리하일, 전재선, 박기서, 김룡연과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군종, 병종 사령관들과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의 나날들을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이며 건군절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을 고무격려하시면서 조선인민군창건 67돐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공훈합창단은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군가에 발을 맞추자≫, ≪군민일치 노래부르자≫, ≪천만이 총폭탄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이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투쟁의 기수, 투쟁의 나팔수답게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으로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관람

(평양 주체 88년 6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5월 31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526군부대와 제264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은 합창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 가야금독병창 ≪나는 초병의 안해≫, 시이야기 ≪우리도 전초선에 서있다≫를 비롯한 특색있는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전체 예술소조원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가족들은 조국보위의 전초선에 선 남편들과 함께한몸 그대로 육탄이 되여 사랑하는 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사수할결사의 각오를 안고 살며 싸우고있다고 하시면서 군인가족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온 사회에 혁명적기백이 더욱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관람

(평양 주체 88년 9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공화국창건절에 즈음하여8일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연형묵위원, 조선인민군 전재선차수와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병호, 김국태, 김용순비서들과 당중앙위원회 부장 및 1부부장들을 비롯한 책임일군들이 공연을 보았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그이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공훈합창단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천만이 총폭탄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조선인민군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평양 주체 88년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당창건54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136군부대 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비서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리용무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군부대 군인회관 관람석에 나오시여환호하는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면서 당창건기념일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공훈합창단은 이날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조선로동당 만세≫, ≪군민일치 노래부르자≫,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조선의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인민군청년기동선전대의 공연을 관람



(평양 주체 88년 1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현철해, 박재경 대장들,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기남, 김용순 비서들과 리용철, 장성택 제1부부장들이 공연을 보았다.

청년기동선전대원들은 선동과 노래 ≪오늘의 7련대 되리라≫, 실화극 ≪수령결사옹위의 화신들≫, 재담극 ≪병사들을 사랑합시다≫, 혼성중창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높은 전투성과 호소성,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진다양한 예술작품들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고상한 정치도덕적풍모를 생동하게 잘 보여주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청년기동선전대원들이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기동선전대원들이 지난기간 항일유격대식선전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전연과 후방, 건설장의 군인들을 쉬임없이 찾아다니며 멸적의 투지와 용맹을 안겨줌으로써 혁명무력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고 예술선전활동을 기동적으로, 전격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흠모송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평양 주체 89년 3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가 널리 불리워지고 있다.

그것은 이 노래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난관이 겹쌓일수록 자기 수령을 따라 가는 길에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 있다는 철리를 더욱깊이 새겨주기때문이다.

이 노래는 5대혁명가극들중의 하나인 ≪당의 참된 딸≫의 주제가이다.

가극은 조선전쟁시기 인민군 간호원이였던 공화국영웅 안영애의 투쟁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가극의 주인공 강연옥은 나어린 처녀의 몸으로 전선에서 여러명의부상자들을 인솔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으며 후방병원인 태백산병동으로 행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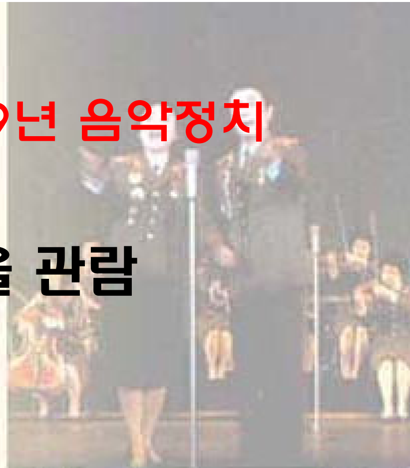
간고한 행군으로 목적지인 태백산병동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2호집결지점으로≫라는 글발만 남기고 후방병원은 멀리 떠난 뒤였다. 가극의 기본절정을 이루는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북녘하늘을 우러르며 노래를 애절하게 부른다.

창문가에 불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곳은 그 어데일가고 절절하게 부르는 주인공의 노래에는 기어이 수령님의 품으로 찾아 가리라는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 있다.

1950년대 전화의 나날 **김일성**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싸워 전승을 이룩한 그 숭고한 사상정신은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육체적능력의 극한점에 도달한 정성옥이 불가항력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세계≪마라손녀왕≫이 된것도, 며채전 인민군군인들이 적들의 회유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길수 있은것도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그리며 달리고 싸웠기때문이다.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은 조선인민이 지난 시기 간고하였던 ≪고난에 행군≫, 강행군을 이겨낸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김정일총비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

(평양 주체 89년 5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제593군부대와 제337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상과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은 합창 ≪조선의 행운≫, 제창이야기 ≪병사들을 위해 바치리≫, 3중창이야기 ≪우리는 자랑많은 군관의 안해라오≫, 극이야기 ≪어머니의 마음≫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랑만에 넘친 자기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군인가족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 생활기풍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백배, 천배로 억세여진 우리 인민의 사상, 문화, 도덕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예술활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대중적인 예술활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 칭송, 음악평론가

(평양 주체 89년 9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이 ≪한민전≫ 부산시위원회의 통보를 전한데 의하면 음악평론가 강수일이 6일 중구에서 열린 ≪민족예술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예술의 천재≫, ≪민족음악발전의 걸출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민족의 얼이 살아 있고 민족적향취가 짙게 풍기는 이북의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보면서 민족예술의 현주소와 미래를 다시금 명백히 알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련된 높은 연주기교, 빈틈 없고 잘 째인 안삼불, 관중과의 기막힌 일체감 등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은 그야말로 세계 최상급의 수준이다.

나는 민족음악도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세계적인 음악으로 된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바로 이북의 민족음악예술이 오늘과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것은 전적으로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한것이다.

진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예술의 천재이시며 민족음악발전의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평양 주체 89년 10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종대지휘성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 ≪총폭탄≫, ≪결사옹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을 터치면서 그이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종대지휘관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면서 당창건기념일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김정일**장군의 노래≫, ≪조선로동당 만세≫,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 ≪우리는 당과 함께 승리했네≫, ≪높이 들자 붉은기≫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령도 따라 55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인민이 창조한 자랑찬 위훈을 격조 높이 노래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최고사령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도도히 맥박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김정일위원장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

(평양 주체 89년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3일 저녁 5월1일경기장에서 10만명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관람하시였다. 미합중국 국무장관 매들레인 케이. 알브라이트와 그 일행이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함께 보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일**령도자께서 주석단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만세≫의 우뢰와 같은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축포가 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배경대에 새겨 지고 경기장바닥은 춤률동과 환희의 꽃물결로 끝없이 설레이였다.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혁명력사와 주체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특색 있는 형식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축포가 올랐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일총비서 중국고위군사대표단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관람

(평양 주체 89년 10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과 함께 25일 5월1일경기장에서 10만명의 청소년학생들과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관람하시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인 김영남동지, 조명록동지, 김영춘동지, 김일철동지, 계응태동지, 김철만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림동지, 김국태동지, 김중린동지, 김용순동지, 리용무동지, 김익현동지, 리하일동지와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관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며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인 상장 지호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국장동지와 대사관성원들, 중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만세≫의 우뢰와 같은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축포가 터져 올랐다.

배경대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새겨 지고 경기장 바닥은 환영의 꽃물결과 춤률동으로 끝없이 설레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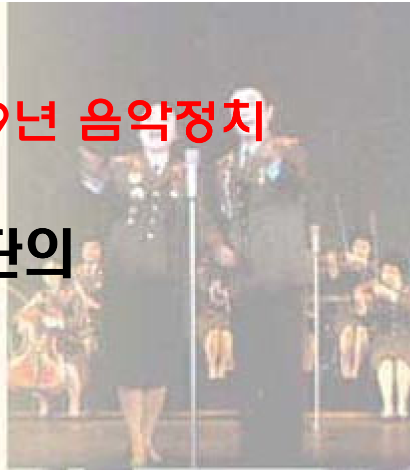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은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자랑찬 투쟁업적과 위대한 당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 없는 신념과 의지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 보이였다.

10만명의 청소년학생들과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축포가 터져 오르고 춤바다, 꽃바다가 펼쳐 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

(평양 주체 89년 1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19일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국방위원회 연형묵위원과 리용무부위원장, 조선인민군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대장들, 김윤심, 오금철상장들을 비롯한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 김국태비서들과 부장 및 1부부장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 로동신문사 최칠남책임주필, 조선중앙통신사 김기룡사장,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차승수위원장이 공연을 보았다.

조선인민군 협주단은 합창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남성독창 ≪위대한 선군혁명 만세≫, 무용 ≪붉은 기발을 지켜≫, 노래와 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협주단은 앞으로도 군대와 인민을 영웅적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데서 앞장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혁명적인 예술창작과 예술활동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 중국 상해 교향악단공연을 관람

(평양 주체 90년 3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 령도자께서는 23일 4.25문화회관에서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 상해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증경홍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내에서는 우렁찬 환호와 박수가 터져 올랐다.

중국 상해교향악단 예술인들은 지난 1월 상해방문시에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 주시고 조선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여 주신 **김정일**령도자께 다함 없는 흠모의 정을 담은 꽃바구니를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연형묵, 김국태, 최태복, 한성룡, 계응태를 비롯한 중앙의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책임일군들,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 인민군군인들과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보았다.

또한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대표단 성원들, 조선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국장과 대사관성원들, 상해교향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조선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류학생들이 공연을 보았다.

상해교향악단 예술인들은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 녀성고음독창, 남성중음독창, 피아노협주곡과 조선노래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공연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관현악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공연의 막을 내리였다.

조중친선의 정이 뜨겁게 넘쳐 흐르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 로씨야국립아까데미야내무성 협주단의 공연을 관람

(평양 주체 90년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 령도자께서는 22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로씨야국립아까데미야내무성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계응태, 한성룡, 김중린비서들과 정하철부장,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장철위원장,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리용철, 장성택1부부장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현철해, 박재경대장들과 인민군군인들, 로동신문사 최칠남책임주필, 조선중앙통신사 김기룡사장,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차승수위원장을 비롯한 출판보도부문의 주요일군들이 공연을 보았다.

이날 이 협주단 예술인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막을 올린 공연무대에 합창 ≪정의의 싸움≫, ≪출격≫, 무용 ≪승리한 병사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올렸다.

출연자들은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공연의 막을 내리였다.

조로친선의 정이 뜨겁게 흐르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

(평양 주체 90년 6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23일 조선인민군 제3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제604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비서와 제1부부장들, 조선인민군 현철해, 박재경 대장들을 비롯한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은 합창 ≪태양절 봄명절≫, ≪붉은기 높이 조선은 나간다≫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믿음직한 녀성혁명가들로 투쟁하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과 보람찬 생활을 격조 높이 노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가족들은 전사들과 남편들의 혁명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 주는 참으로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녀성혁명가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자신보다 나라와 혁명을 먼저 생각하는 군인가족들을 비롯한 혁명적인민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조국은 금성철벽이며 우리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대에서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전통화하여 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있는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적이며 대중적인 예술활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 군공훈합창단과 군악단의 합동공연 관람



(평양 주체 90년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24일 인민군장병들과 함께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과 군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과 인민무력상 김일철,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비서들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공연을 보았다.

합창단과 군악단은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 ≪내가 지켜선 조국≫,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한 합창곡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을 접견



(평양 주체 90년 4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1일 함흥에서 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정하철부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련자가수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그와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김련자가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현지지도의 분망하신 속에서도 친히 자기를 만나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날 김련자가수일행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